

2018년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바른역사학술원 정기 봄 학술대회

“식민사관 비판은 한국중앙연구원의 금기인가”

- 일시 : 2018년 5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태화빌딩 강당
- 주관 : 한국바른역사학술원·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 후원 :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유라시안네트워크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순국선열유족회
대한사랑/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외
140개 단체 후원

“식민사관 비판은 한국중앙연구원의 금기인가”

2018년 바른역사학술원 정기 봄 학술대회 진행 일정표

◎ 태화빌딩 강당

세부일정	내 용	비 고
등록 및 접수 14:00~14:1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10~14:40	개회사 축사 및 내빈 소개	
14:40~15:05	발표 1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 연구소 소장
15:50~15:10	토론 1	조병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
15:10~15:30 휴식시간(20분)		
15:30~15:55	발표 2 -한국 근대역사학: 실증주의와 민족주의	임종권 송실대 초빙교수
15:55~16:00	토론 2	이시종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16:00~16:25	발표 3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임찬경 국학연구소 연구원
16:25~16:30	토론 3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
16:30~16:55	발표 4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장
16:55~17:00	토론 4	임기상 현대사 연구가
17:00~17:20 휴식시간(20분)		
17:20~17:50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17:50~18:0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차 례

등록 및 접수

국민의례
미사협 상임대표 인사말
내빈소개 및 내빈 축사

2018년 바른역사학술원 정기 봄 학술대회

주제 : 식민사관 비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금기인가

발표 1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_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토론_ 조병현(간도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발표 2

한국 근대역사학: 실증주의와 민족_
임종권(송실대학교 교수)
토론_ 이시종(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발표 3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_
임찬경(국학연구소 연구원)
토론_ 김동환(국학연구소 연구원)

발표 4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_
김병기(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장)
토론_ 임기상(현대사 연구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¹⁾ 번역 및 비판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I. 들어가는 글
- II.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의 번역 및 비판
- III.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한국 강단사학계는 ‘낙랑군=평양설’을 이른바 ‘정설’로 추종한다. 낙랑군 속현인 수성현(遂城縣)은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원을 들여 제작했던 「동북아역사지도」에도 그대로 확인되어 황해도 수안을 낙랑군 수성현이라고 표기했다.²⁾ 2015년 국회에서 이 지도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한민국 국회 동북아역사특위에서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로 표기한 사료적 근거를 요구했을 때 동북아역사재단은 ‘낙랑군 수성현은 황해도 수안군’이라면서, 그 근거 사료로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 148쪽만을 근거로 제시했다.³⁾ 다음의 유명한 구절이다.

“수성현(遂城縣)…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遂安)에 비정

-
- 1) 이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 1876 - 1940)가 일본의 『사학잡지(史學雜誌)』 제 21편(編) 제2호에 쓴 논문이다.
 - 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지도』 019-k003-1, 「고구려, 부여와 중국 군현 기원전 108~서기 119년」은 황해도 수안에 낙랑군 수성현을 표기해 놓았다.
 - 3) 동북아재단에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 특위에 제출한 낙랑군 수성현의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주제	국가	시기	분류	위치	논자	출전	전거	원문
낙랑군 遂城縣	前漢	B . C . 108~313년	지점	황해도 遂安郡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48쪽		

하고 싶다. 수안에는 승람 산천조에 요동산(遼東山)이란 산명이 보이고, 관방조(關防條)에 후대 소축(所築)의 성이지만 방원진(防垣鎭)의 동서행성의 석성(石城)이 있고, 또 진지(晉志)의 이 수성현조에는 -맹랑한 설이지만-「진대장성지소기(秦代長城之所起)」라는 기재도 있다.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 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 도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長城址)가 있어서 그러한 부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⁴⁾

이 구절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2009)』에서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병도의 윗글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스개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는 이병도의 윗 구절을 유일한 근거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더 큰 문제는 ‘낙랑군 수성현=황해도 수안군설’이 이병도의 연구결과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의 내용을 표절한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모한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과제에 단독 응모해서 사업을 수주했다. 5가지 사업목적 중 첫 번째가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였는데, 국내의 거의 모든 역사학 관련 단체가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이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과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를 저술했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은 조선총독부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한 것이고,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는 조선총독부의 ‘한사군 한반도설’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임나일본부설 비판)』은 무사통과되었으나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 한반도설 비판)』는 거듭해서 출간금지(F) 등급이 내려졌다. 그런데 심사평에 심사자의 심사분야도 아니었던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에 실린 ‘나가 미츠요의 「조선고사고」, 쓰다 소키치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관하여」 등 원사료를 번역하고 해제해서 저서의 부록으로 집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왜곡된 한국 고대사상을 서술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저작을 번역까지 해서 저술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식민사학의 논리와 그릇된 한국사상을 보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F의 논거로 삼았다. 자신의 심사분야인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 한반도설 비판)』을 넘어서는 무리수까지 둔 것은 한국 강단사학계의 영원한 스승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원문이 번역되고 해제되어 일반 국민들이 알 것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 한반도설 비판)』에 이병도가 표절한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를 번역하고 해제 비판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교토대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4) 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년(2001년 중판도 같은 내용이다)148쪽.

에게 사사(師事)하고 1900년 북경으로 유학갔다. 1908년부터 만철(滿鐵) 조사부에서 ‘만주역사지리’ 편수(編修)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1925년부터 조선총독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조선사(朝鮮史)』 35권을 편수(編修)했다. 1937년 만주건국대(滿洲建國大) 교수를 역임했다. 이병도는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를 표절해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무슨 논리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했는지 살펴보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심사자들이 왜 이것이 번역 비판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I.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의 번역 및 비판⁵⁾

진(秦) 장성(長城) 동단(東端:동쪽 끝)을 기록한 것은 『사기(史記)』 「흉노전(匈奴傳)」에, “연나라도 장성을 축조했는데, 조양(造陽)에서 시작해 양평(襄平)까지 이르렀다(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고 했으며, 또한 “후에 진(秦)나라가 6국(六國)을 멸망시킨 후 북쪽으로 호(胡:흉노)를 공격하게 해서 하남(河南) 땅을 모두 거두었다. 하수를 따라서 요새를 만들고 44개 현성(縣城)을 쌓고, 하수에 임해서 죄수와 수자리 병사들을 이주시켜 채웠다. 그리고 직도(直道:곧게 뻗은 길)를 개통했는데, 구원(九原)에서 운양(雲陽)까지 이르렀다. 변방의 험한 산에 참호를 쌓고 계곡을 따라 보수해서 잘 다스리게 했다. (장성은) 임조(臨洮)에서 일어나 요동(遼東)까지 만리에 이르렀다(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또한 “後秦滅六國, 北擊胡, 悉收河南地, 因河爲塞, 築四十四縣, 城臨河, 徙適戍以充之, 而通直道, 自九原至雲陽, 因邊山險, 塹谿谷, 可繕者治之, 起臨洮至遼東萬餘里”⁶⁾라는 것이 있다.

해설자(說者)는 곧 진(秦) 장성(長城)은 전연(全燕:전성기 때의 연나라)의 옛 제도(舊規)에 의(依)한 것이고, 그 ‘요동(遼東)에 이른다(至遼東)’고 한 것은 요동군(遼東郡)의 치소(治所)인 양평현(襄平縣)을 가리킨다고 여겼다. 이 해설은 애초부터 착오(錯誤)이다.⁷⁾

5) 본문은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고, 주석은 필자가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리 및 관련사료들을 비판한 것이다.

6) 이나바 이와기치는 『사기』 「흉노열전」에서 ‘後秦滅六國’과 ‘北擊胡’ 사이에 있는 ‘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을 빼고 인용했다. 『사기』 「흉노열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본문과 주석의 해석은 이 책(『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의 본문에 있다.

燕亦築長城, 自造陽, 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以拒胡. 當是之時, 冠帶戰國七, 而三國邊於匈奴. 其後趙將李牧時, 匈奴不敢入趙邊. 後秦滅六國, 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胡, 悉收河南地. 因河爲塞, 築四十四縣城臨河, 徙適戍以充之. 而通直道, 自九原至雲陽, 因邊山險, 塹谿谷, 可繕者治之, 起臨洮至遼東萬餘里.

7) 앞에서 인용한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이란 문장의 양평에 대해서 『사기색은』은 ‘위소(韋昭)가 말하기를, 「지금의 요동을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했다(韋昭云, 「今遼東所理也」)는 주석을 신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은 한결같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와 다르면 모두 틀리다고 말하기 일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연진(燕秦)장성의 동쪽 끝이 한반도 내라는 결론을 내려놓았는데, 요동 양평이라고 나오니까 처음부터 착오하고 부정하는 것뿐이다.

진(秦) 장성(長城)의 동부(東部)가 본래부터 전연(全燕:연나라 전성기)의 규모(規模)에 의(依)한 것은 해설자(說者)의 말 대로이지만 때로 출입(出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양평(襄平)이 연·진(燕秦) 두 나라에서 다 요동부(遼東部)의 치소(治所:다스리는 곳)인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본문은 다만 장새(鄣塞)가 요동부에 이른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汎說)한 것에 불과하다. 오인(吾人)은 우선 연나라와 진나라의 요동(遼東)의 강역(疆域)을 검색(檢索)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성(長城) 동단(東端)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또한 어느 변경(何邊)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흉노전」에 ‘양평(襄平)에 이른다(至襄平)’는 문장에 기초하여, 굳이 그 고지(故址)를 구해서 이것에 장성이 일어나는 지점(起點)을 두려고 하는 것은 구애되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겠는가.

마쓰이(松井) 문학사(文學士)의 「진(秦) 장성(長城) 동부(東部)의 위치에 대하여」(『역사지리(歷史地理)』 13의 3호)라는 일편(一篇)은 지금의 승덕부(承德府)의 경계를 포괄한 것으로 보아서 종래(從來) 사가(史家)의 좁은 견해(陋)를 깨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연(燕)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이 양평(襄平)에 이른다고 한다면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 또한 같은 곳으로서 요동에 이른다고 한 것은 그 일(其事)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다. 혹은 양평(襄平)보다도 먼 지점(地點)에 이를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한대(漢代)의 기록에는 그런 증거(證)가 없다. 그렇다면 ‘양평(襄平)은 어디가 될까’라는 일절(一節)은 오인(吾人)이 끝내 동의하기 어렵다.(참고로 말하자면, 『사기』·『한서(史漢)』에 혹은 ‘장성(長城)’이라고 했고, 혹은 ‘장새(鄣塞)’라고 했는데 둘은 같은 것을 달리 말한 것(二者同一他)이다.⁸⁾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요서군(遼西郡) 신안평(新安平) 아래에 ‘신안평현은 이수(遼水)가 동쪽으로 흘러 새외(塞外)로 들어간다(夷水東入塞外)’라는 구절이 보이고, 교려(交黎) 아래에 ‘교려현은 유수가 첫 번째로 새외를 받아 남쪽으로 들어간다(渝水首受塞外南入海)’⁹⁾라는 구절도 보인다. 나아가 대강 볼(概見)만하다)

한대(漢代)의 기록에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을 가지고 양평(襄平) 이외의 지역에서 구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전연(全燕)의 요동(遼東) 강역(疆域)을 고려하지 않은 소견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과연 이러한 것을 기필(期必)하려면 『사기』 「조선열전(朝鮮列傳)」에,

조선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처음 연나라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장새(鄣塞:요새)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

8) 혹은 원문의 타(他)자를 지(地)자의 오류로 본다면, ‘둘은 동일한 지역이다(二者同一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9) 이나바는 한나라 때 새외(塞外)가 어디인지를 추정하기 위해 앞의 구절들을 적은 것이다. 『한서』 「지리지」 ‘요서군 교려현’에 대한 전체 주석은 ‘교려현은 유수가 맨 먼저 새외를 받아서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동부도위의 치소이다. 왕망은 금로라고 했다(交黎, 渝水首受塞外, 南入海. 東部都尉治. 莽曰禽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응소(應劭)는 ‘지금의 창려이다(應劭曰, 『今昌黎.』)’라는 주석을 달았다. 지금의 창려는 하북성 소속으로서 한(漢)과 고조선의 국경 역할을 했던 갈석산이 배후에 있는 현이다.

라를 멸망시키고 요동 외요(外徼)에 소속시켰는데, 한나라가 일어난 후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요동의 옛 요새(故塞)를 수복하고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아서 연(燕)에 소속시켰다.(『사기』, 「조선열전」, 한글 번역은 필자가 한 것으로 아래도 같다.)

朝鮮王滿者，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鄣塞，秦滅燕，屬遼東外徼，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泅水爲界，屬燕，

라고 되어 있는 명문(明文)을 어떻게 보아서 내용을 알아차려야(看取)할 것인가. 시험 삼아 본문을 해석하면 한(漢)은 진(秦) 장성(長城)이 멀어서 지키기 어려움을 고려해서 다시 요동의 옛 요새(故塞)를 수리했는데, 그 지점(地點)은 패수(泅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秦)의 장새(鄣塞)인 패수 이남(以南)의 지역에 이르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패수’란 지금의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킨다.¹⁰⁾ 만약 해설자(說者)를 따라서 연·진(燕秦)의 장새(鄣塞)가 반드시 동일한 지역(同一地)에서 일어났다(起)고 보면 연·진(燕秦) 장성(長城)이 패수 이남(以南)에 이른다고 여겨야 할 것인가. 양평설(襄平說)은 이에 관해서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燕)의 동쪽 경계는 어디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인가. 위략(魏略)을 살펴보면,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朝鮮侯)는 주(周)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연(燕)나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 지역을 침략하려 하자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역으로 연나라를 공격해서 주나라 왕실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나라 대부 예(禮)가 간쟁해서 그만 두었다. 예를 사신으로 보내서 연나라를 설득하자 연도 그치고 침공하지 않았다. 후에 그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져서 연나라는 장수 진개(秦開)를 보내서 (고조선의) 서방을 공격해서 그 땅 2천여리를 취하고, 만번한(滿潘汗)에 이르러 경계를 삼으니 조선이 점점 쇠약해졌다.

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潘汗爲界，朝鮮遂弱，¹¹⁾

라고 되어 있다. 만번한(滿潘汗)은 전연(全燕)의 동쪽 경계를 가리킨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면, 요동군(遼東郡)의 현명(縣名)에 ‘문(文), 번한(番汗)’이 있는데 서안평(西安平) 다음에 놓여 있다. ‘서안평’은 지금의 압록강(鴨綠江) 입구 구련성(九連城)¹²⁾ 부근 지역에 있다는 사실이 『동서(同書:한서 지리지)』 ‘현도군

10) 이나바 이와기치는 고조선과 한의 국경이었던 패수를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대동강(大同江)이란 용어는 중국 25사 중에서 『명사(明史)』 「조선열전」과 이성량(李成梁)·여송(如松) 등 부자 열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모두 임진왜란(1592~1597)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서기 전 2세기 이전의 지명비정을 하면서 16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나바의 논리는 패수가 대동강이란 전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논리는 무너지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11)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 주석으로 달린 ‘魏略’ 기사이다.

12) 구련성(九連城)은 압록강 신의주 대안의 단동(丹東) 동북쪽에 있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이 주장에 따

(玄菟郡), 서개마(西蓋馬) 조(條)에 “마자수는 서북으로 흘러 염난수에 들어가고, 서남으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馬訢水, 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문현(文) 및 번한현(番汗)’은 마자수(馬訢水) 동쪽 지역에 있다는 사실과 번한(番汗) 아래, “패수는 새외에서 나와서 서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沛水出塞外西南入海)”라고 되어 있는 데서 살펴 알(察知) 수 있다.

진풍(陳豐)¹³⁾은 이렇게 일렀다.

“지금 조선국 박천성(博川城) 대정강(大定江)¹⁴⁾은 서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대개 패수(沛水)이다. 마자수(馬訢水)는 새외(塞外)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물이 새외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마자수 동쪽을 지나가 마자수의 서쪽 서안평(西安平)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서안평이 요동에 속해 있다면 지금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한나라 요동이다. 대정강은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으니 또한 당연히 요동의 땅이 될 것이다. 또 그 강은 서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니 패수(沛水)가 됨을 알 수 있다.¹⁵⁾

今朝鮮國博川城大定江, 西南流入海, 蓋沛水也, 馬訢水不出塞外, 此水出塞外, 必更在馬訢水之東, 馬訢水之西安平入海, 西安平屬遼東, 今鴨綠江入海處爲漢遼東也, 大定江距鴨綠江入海處不遠, 亦當爲遼東地, 又其水西南入海故知爲沛水也”

진풍의 이 설명은 오인(吾人)의 뜻을 얻었다.

정약용이 이르기를, “생각해보니 지금 북경은 우리나라 의주에서 2천1백리 떨어져 있다(按今北京距我義州二千一百里)”라고 했는데, 연(燕)이 북경(北京)의 동쪽, 지금의 계(薊)에 도읍했다면, 현장(賢將) 진개(秦開)가 2천여리를 개척했다(拓地二千餘里)는

라서 식민사학은 현재까지도 단동을 한나라 때의 서안평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의 어떤 구절도 서안평이 지금의 압록강 입구 구련성 부근 지역이라고 비정하지 않았다.

13) 진풍(陳豐: 1810~1882)은 청나라 번우(番禺) 사람으로서 『한유통의(漢儒通義)』, 『동숙독서기(東塾讀書記)』, 『설문성통(說文聲統)』, 『성률통고(聲律通考)』, 『동숙총서(東塾叢書)』 등을 썼다. 주로 중국 운학(韻學) 연구에 정통했다고 평가된다.

14) 평안북도 박천군(옛 가산)에 있는 강 이름. 진풍의 글은 대정강이 패수라는 희한한 주장이다. 아무런 1차 자료적 논거나 합리적 추론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요동군’ 조에는 문(文)현과 번한(番汗)현이 나오는데, 번한현에 대해서 “패수가 새외에서 나와서 서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沛水出塞外, 西南入海)”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번한현이 만·번한(滿番汗)현인 것이다. 이 두현이 한나라 요동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내로 비정할 수는 없다.

15) 양수경이나 진풍같은 청나라 학자들이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이다 보니 한사군이 있었다는 요동(遼東)이란 지역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압록강도 요동이고, 박천 대정강도 요동이라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후한서』 「군국지(郡國志)」는 서안평을 유주(幽州: 현 북경 부근) 요동군 속현으로 적고 있고, 같은 책 「고구려 열전」 주석에는 “「군국지」에는 서안평과 대방현은 모두 요동군에 속해 있다(郡國志, 西安平·帶方縣, 並屬遼東郡)”고 설명하고 있으니 서안평과 대방현을 한반도 내로 비정하려면 두 지역이 한반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꿩먹고 닭을 한 것이다. 서안평에 대해서 신(新)나라를 건국한 왕망(王莽)은 북안평(北安平)이라고 개명했다. 서안평을 압록강 대안단동이라고 하기 전에 언제부터 중국에서 동(東)이란 용어를 북(北)으로 바꾸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요사(遼史)』 「지리지」 ‘상경도(上京道) 상경임항부(上京臨潢府)’ 조는 요나라 수도였던 상경 지역에 대해 “상경도 상경임항부는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 땅이었다. 신나라 왕망은 북안평이라고 했다(上京道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西安平之地. 新莽曰北安平)”고 적고 있다. 상경임항부는 현재 내몽골 파림좌기(巴林左旗)지역으로서 이 지역이 서안평이라면 왕망이 북안평이라고 부른 방위 개념과도 고구려가 태조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한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략했던 이유와도 맞아 떨어진다.

곳은 멀리 압록강을 넘어, 박천의 대정강(大定江:지금의 청천강[淸川江]을 말한다)¹⁶⁾ 즉 만번한(滿潘汗)에 이른다고 단정해도 대차(大差:큰 차이)가 없으니, 기자(箕子) 후의, 조선후(朝鮮侯)의 강역(疆域)은 이 지점에서 경계 지워진다. 이는 실로 전연(全燕) 전성기 때의 동쪽 강역(東疆)에 관계된다¹⁷⁾.

해설자(說者)가 혹은 의심하기를 ‘연(燕)은 본래 미약(微弱)해져서 이미 중국 땅(中土)의 제후와 서로 지지 않고 대항(抗衡)할 수 없는데, 어찌 능히 진번조선(眞番朝鮮)을 침략(略)할 수 있겠는가, 만번한(滿潘汗)의 땅은 마땅히 저절로 요하(遼河) 유역에 있어야 할 것’이라 여긴다. 응하여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연(燕)이 중국 땅과 서로지지 않고 대항할 수 없었기에 곧 능히 땅을 조선에 개척한 소이(所以)다. 연(燕)은 서쪽에 삼진(三晉)이 있고 남쪽에 제초(齊楚)가 있으며 현장(賢將) 진개(秦開)가 동호(東胡)를 습파(襲破:습격해서 깨뜨림)하여 동북(東北)으로 능히 천여 리에 이르는 멀리까지 틈을 냈지만, 그럼에도 재화(貨財)를 채취하여 이익을 취할 바가 없었다. 이 재화가 있는 것은(これあるは) 다만 동방(東方)의 한예(韓濊)의 지역이었을 것이다. 『사기』 「화식전(貨殖傳)」에 연(燕)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이르기 “동쪽 예맥·조선·진번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모두 차지했다(東綰濊貊朝鮮眞番之利)”¹⁸⁾라고 했다. 오인(吾人)은 이러한 정세를 살펴서 연(燕)의 동방경략(東方經略)이 압록수(鴨綠水)를 지났다고 즉시 단정하는데 어떠한 주저함이 있음도 인정할 수 없다.

진(秦)의 장새(鄣塞) 동단(東端)은 어느 지역에서 기(起:시작)했을까, 『사기』 「조선열전」에 이렇게 일렀다.

16) 대정강은 박천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천강과는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안도 박천군(博川郡) 조는, “박천강(博川江); 옛 이름은 대령강(大寧江)인데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대정강(大定江)이라고도 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명일통지』를 보고 혼동한 듯 하다.

17)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의 「지리지(6집) 강역고」 ‘조선고(朝鮮考)」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鑰案) 지금의 북경은 우리나라 의주에서 2천1백리 떨어져 있다. 만약 『위략(魏略)』의 말과 같다면 압록강 서쪽 땅을 잃었을 뿐이다. 어찌 다시 만번한을 수복해서 경계로 삼았겠는가? 그 설이 망령되다. 그러나 기씨(箕氏)가 개척한 땅이 멀리 요수(遼水)를 지났다면 이를 검증할 수 있다……『명일통지(明一統志)』에서 말하기를 “조선성은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箕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라고 서로 전하고 있다. 후위(後魏)에서 현을 설치해서 북평군(北平郡)에 소속시켰다가 북제(北齊)에서 현을 없애고 신창현(新昌縣)에 편입시켰다.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영평부는 옛 북평군이다. 또한 『위략』에 근거한다면 만번한 서쪽 2천여리는 옛날 기씨의 소유였다. 지금 요동으로부터 서쪽으로 2천여리를 가면 영평부 경내이니 『일통지』가 말한 것이 진실로 근거가 있다.(○鑰案今北京, 距我義州二千一百里. 若如魏略之說, 遂失鴨江以西矣. 寧復得以滿潘汗爲界哉, 其說妄矣. 然箕氏拓地, 遠過遼水, 斯可驗也……○明一統志云, 朝鮮城, 在永平府境內, 相傳箕子受封之地, 後魏置縣, 屬北平郡, 北齊省入新昌縣. ○鑰案今之永平府, 古之北平郡也. 且據魏略, 潘汗以西二千餘里, 在古爲箕氏之有, 今自遼東而西, 行二千餘里, 正得永平府境一統志所言真有據也)”

정약용은 『위략』의 말이 맞다면 고조선이 연나라에 빼앗긴 땅은 압록강 서쪽이지 한반도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통지』에 근거해 영평부, 즉 지금의 하북성 노룡(盧龍)현이 옛 기자가 봉한 고조선 지역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정약용의 이런 논리는 모두 배제하고 마치 정약용이 ‘의주에서 북경까지 2천1백리’라고 말한 대목만 뜯어내서, 박천의 대정강을 만번한이라고 한 이나바의 문장과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마치 정약용이 대정강이 만번한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의 부도덕한 태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18) 이는 『사기』 129권 「화식열전(貨殖列傳)」의 내용이다. 이 대목은 ‘무릇 연은 발해와 갈석산사이에 있는 큰 고을이다(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로 시작한다. 이 구절에 대해 『사기 정의(正義)』는 ‘발해와 갈석산의 서북쪽에 있다(勃海、碣石在西北)’라고 말했다. 즉 연나라는 지금의 하북성 창려현에 있는 갈석산 서쪽에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써 한반도 내로 들어올 수 없다. 이나바 이와기치도 이 내용을 봤겠지만 자신이 미리 내려놓은 결론과 다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린 것이다.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도 망명했다. 무리 1천여 명을 모아서 북상투에 만이(蠻夷) 복장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塞)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진(秦)의 옛 빈땅인 상하장(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진번, 조선의 만이(蠻夷) 및 옛 연(燕)·제(齊)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는데, 왕함에 도읍했다.

燕王盧綰反，入匈奴，滿亡命，聚黨千餘人，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涇水，居秦故空地上下鄣，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이렇게 패수(涇水) 서쪽에 요새(塞)가 있는데, 그것을 한(漢)의 장새(鄣塞)라 보았다. 위만이 망명했을 때 한(漢)의 장새(鄣塞)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서, 그리하여 진의 ‘옛 빈 땅 상하장(故空地上下鄣)’에 있었다고 한다면 진(秦) 장성(長城)의 기점(起點)은 패수 이남의 지역에 있다.

전문(前文)에, “한나라가 일어나서 그곳이 멀어서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는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았다(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涇水爲界)”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해도, 진 장성이 패수 이남에서 일어나는(起) 것을 가릴(掩) 수는 없다. 그래서 오인(吾人)은 이 기점을 가지고, 낙랑군 수성(遂成)현이라고 본다.

진(晉) 태강(太康) 3년 지기(地記)에,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遂城縣，有碣石山，長城所起)”라고 했고, 『진서(晉書)』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낙랑군 수성현은 진나라에서 쌓은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樂浪郡遂城縣，秦築長城之所起)”라고 했다. 이 기록은 장성의 동단(東端:동쪽 끝)의 위치를 결정할만한 철로 만든 단안(鐵案)이다. 수성(遂城)의 수성(遂成:비로소 완성됨)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지위(位地:위치)의 비정(比定)에 이르러서는, 이설(異說)이 없지 않다.

정약용은 『통전(通典)』의 설에 따르면 수성(遂城)은 지금의 의주(義州)·창성(昌城) 지역인가, 압수(鴨水:압록강)의 경계인가, 그렇지 않다면 압수의 서쪽으로, 지금의 수책(樹柵:목책)의 동두(東頭:동쪽 끝) 지역일 것'인데¹⁹⁾, 정약용이 패수의 해설에 의심이 있다면 이렇게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겠지만 패수가 고래(古來)로 유일(唯一)하게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상 수성

19) 이나바 이와기치는 정약용의 글을 편린만 인용해서 비판하고 있다. 정약용의 이 주장은 뒤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제시할 것이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지리지(6집)』 『강역고(疆域考)』의 「낙랑고(樂浪考)」에서 정약용은 “『사기』 「태강지리지」에서,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하고는 『통전』에서는 ‘갈석산은 한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 (만리)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장을 인용했다. 그리고는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 통전의 설과 같다면 수성은 곧 지금의 의주, 창성의 땅으로서 압록강의 경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 압록강 서쪽이니 지금 수책(樹柵:목책)의 동두(東頭:동쪽 끝)의 땅이다(鑄案若如通典之說，則遂城，當在今義州昌城之地，鴨水之界。不然，或在鴨水之西，今樹柵東頭之地也)”라고 말했다. 정약용은 낙랑군 수성현을 의주·창성의 압록강 경계든지, 압록강 건너 서쪽 만주의 목책의 동쪽 끝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정약용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고래로 패수는 대동강’이니 다른 모든 견해를 틀렸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遂成)을 이러한 지방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여겼다²⁰⁾.

조지연(趙志淵)²¹⁾도 정약용의 원고(原考)를 의심해서 이렇게 말했다.

“고구려사에 따르면 태무신왕 21년에 낙랑을 습격해서 멸망시켰는데, 그후 7년 후에 한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해서 그 지역을 취하고 살수 이남을 한나라에 속하게 만들었다. 동천왕 21년에 고구려가 평양성을 축조했다는 말은 즉 살수 이북의 지역과 평양성이 고구려의 소유라는 말이다. 이미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사이에 의주·창성 등은 밀우에 의해서 고구려의 국도가 되었는데, 수성 일현(一縣)이 어찌 낙랑군의 통현(統縣)이 될 수 있겠는가? 이에 근거하면 즉 수성(遂城)이 수안(遂安)이 되었다는 설이 아마도 그럴듯하다.

據句麗史，太武王二十年，襲樂浪滅之，後七年漢光武伐樂浪，取其地，薩水以南屬漢，東川王二十一年，句麗築平壤城云，則薩水以北之地，及平壤之城，句麗所有者，已在漢魏之際，而義州昌城等，地尤爲密邇句麗國都，遂城一縣，惡得爲樂浪郡統縣也，據此則遂城爲遂安之說恐然”

이 설은 참으로 퍄인의 뜻을 얻었다.

『한서』「지리지」의 수성(遂成)은 증지(增地)의 이웃현(隣縣)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패수와 떨어진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지리지」 낙랑군 아래 ‘수성(遂成), 증지(增地)’라고 되어 있다. 패수현 아래에 “물이 서쪽으로 증지에 다다라서 바다에 들어간다(水西至增地入海)”라고 보인다. ‘수(水)’는 패수를 가리킨다.²²⁾

20)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를 찾는데 중요한 기준은 갈석산이다. 『통전』에서는 갈석산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평주(平州)는 지금의 노룡현(盧龍縣)인데, 은나라 때 고죽국(孤竹國)이었고, 춘추 때는 산융·비자(山戎·肥子) 두 나라의 땅이었다. 지금 노룡현에는 옛 고죽성이 있는데, 백이·숙제의 나라였다. 전국시대 때는 연(燕)에 속해 있었고, 진(秦)나라 때는 우북평 및 요서 두 군의 경계였다. 전한과 후한이 이를 따랐고, 진(晉)나라 때도 요서군(遼西郡)에 속해 있었다. 후위(後魏) 때도 요서군이라고 했는데, 수나라 초에 평주(平州)를 설치했다가 양제 초에 주를 폐지했다가 다시 북평군(北平郡)을 설치했다. 대당(大唐)에서는 이로 인해 북평군을 설치했는데, 소속된 현이 셋이었다.

노룡현은 한나라 때 비여현(肥如縣)인데, 갈석산(碣石山)이 있다. 갈(碣)은 바닷가에 비석을 세워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진 태강 지리지에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장성을 축조할 때 갈석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려의 옛 경계인데, 이 갈석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나라 요서군의 옛 성이 지금 군의 동쪽에 있는데, 또 한나라 때 영지현성(令支縣城)이 있다. 임려관(臨閭關)의 지금 이름은 임유관(臨榆關)인데, 현성(縣城) 동쪽 180리에 있다. 노룡새(盧龍塞)는 성의 서북쪽 2백리에 있는데, 석성이 한나라의 옛 현이다. (『통전(通典)』권(卷)178, 「주군전(州郡典)」)

平州今理盧龍縣，殷時孤竹國，春秋山戎、肥子二國地也。今盧龍縣，有古孤竹城，伯夷、叔齊之國也。戰國時屬燕，秦爲右北平及遼西二郡之境，二漢因之，晉屬遼西郡，後魏亦曰遼西郡，隋初置平州，煬帝初州廢，復置北平郡，大唐因之，領縣三：盧龍漢肥如縣，有碣石山，碣然而立在海旁，故名之。晉太康地志云：「秦築長城，所起自碣石，在今高麗舊界，非此碣石也。」漢遼西郡故城在今郡東。又有漢令支縣城，臨閭關今名臨榆關，在縣城東一百八十里。盧龍塞在城西北二百里。石城漢舊縣(『通典』卷178, 「州郡典」)

현 중국 경내에 갈석산은 여러 곳이 있다. 하북성 창려현 북쪽의 갈석산과 산둥성 빈주(濱州)시 대산진(大山鎭)에도 갈석산이 있다. 2005년 빈주시는 대산진을 갈석산진으로 개명했다. 또 대갈석산과 소갈석산도 있었고, 바닷물에 잠긴 해변 갈석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고대 한나라와 고조선의 국경 역할을 했던 갈석산이 어디인가 하는 점인데, 이중 가장 동쪽에 있는 갈석산이 현재의 창려현 갈석산이다.

21) 조지연은 누군지 알 수 없다. 비교적 무명인 인물의 글을 제시하려면 최소한 어느 책에서 보았는지 정도는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22) 『한서』「지리지」의 낙랑군(樂浪郡)조는 다음과 같다. 일본과 국내의 식민사학자들이 이를 가지고 낙랑군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이는 전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 조금 길지만 원문과 주석까지 모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이고, ‘증지’는 지금의 진남포(鎭南浦) 서쪽이고, 강서(江西) 쪽은 용강(龍岡:평안남도 용강군)을 가리킨다. ‘증산(甞山)’은 어쩌면 이것의 남은 명칭(遺稱)이 아닐까. 오인(吾人)은 지금 수성(遂成)을 증지의 이웃현(隣縣)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비정(比定)하려고, 패수를 건너서 남쪽으로 가지 않으면 진(秦)의 상하장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니 ‘수성(遂成)’은, 패수 이남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지당하다.²³⁾ 『색은(索隱)』에 이르기를 “『한서』 지리지를 살펴보니 낙랑군에 운장이 있다(案地理志, 樂浪有雲鄣)”고 했는데, ‘운장’은 곧 상하장(上下鄣)을 가리킨다²⁴⁾. 위만(衛滿)이 망명(亡命)했을 때 패수를 건너서 소위 ‘운장’에 들어간다²⁵⁾.

두 소개하겠다. 반절(反切)로 발음을 소개하는 주석은 생략했다.

「낙랑군-무제 원봉 3년(서기전 108) 설치되었다. 왕망은 낙선군(樂鮮郡)이라고 말했는데, 유주(幽州)에 속해 있다.(응소는, 옛 조선국이라고 말했다) 호수는 6만2천812호이고, 인구는 40만6천748명이다.(운장(雲鄣)이 있었다) 25개 현이 있다. 조선현(응소는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말했다) 남감(言+丹邯)현, 패수현-물이 서쪽으로 증지에 닿아서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은 낙선정(樂鮮亭)이라고 불렀다. 함자(含資)현-대수(帶水)가 서쪽으로 흘러 대방(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점제(黏蟬), 수성(遂成)현, 증지(增地)현-왕망은 증토(增土)라고 불렀다. 대방(帶方)현, 사망(駟望)현, 해명(海冥)현-왕망은 해환(海桓)이라고 불렀다. 열구(列口)현, 장금(長岑)현, 둔유(屯有)현, 소명(昭明)현-남부도위(南部都尉)의 치소이다. 누방(鑠方)현, 제해(提奚)현, 혼이(渾彌)현, 탄열(吞列)현-분려산(分黎山)에서 열수(列水)가 나오는데, 서쪽 점제(黏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며, 거리는 820리이다. 동이(東曉)현, 불이(不而)현-동부도위의 치소이다. 잠대(蠶臺)현, 화려(華麗)현, 사두매(邪頭昧)현, 전막(前莫)현, 부조(夫租)현(『한서』 「지리지」 「낙랑군」)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應劭曰:「故朝鮮國也」)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有雲鄣) 縣二十五: 朝鮮(應劭曰:「武王封箕子於朝鮮」) 言+丹邯, 浪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含資, 帶水西至帶方入海. 黏蟬, 遂成, 增地, 莽曰增土. 帶方, 駟望, 海冥, 莽曰海桓. 列口, 長岑, 屯有, 昭明, 南部都尉治. 鑠方, 提奚, 渾彌, 吞列,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東曉, 不而, 東部都尉治. 蠶臺,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漢書』 「地理志」 「樂浪郡」)

이것이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樂浪郡)조의 전부 조항인데, 이를 가지고 워낙 외곡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을 소개했다. 이 원전을 염두에 두고 이나바 이와기치의 주장을 검증해 보면 외곡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3) 이나바 이와기치는 ‘패수가 왜 대동강인지, 증지가 왜 진남포인지, 강서가 왜 용강군인지’ 아무런 1차 사료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그렇다고 단정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위치비정을 하는 식민사학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가련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나바 이와기치도 필자나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사기』, 『한서』, 『통전』 등의 사료를 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료들은 이구동성으로 낙랑군의 위치는 현재의 하북성 지역으로 나온다. 이런 사료들을 굳이 못 본 척하고 한반도로 끌어들이야 하는데 아무런 1차사료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보니 강한 어조로 단정 짓는 어거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거가 없을수록 어조는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이 단정적으로 위치비정할 경우 ‘근거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역사학의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났으니 역사학이 아니다.

- 24) 『사기』 「조선열전」의 상하장(上下鄣)에는 “『색은(索隱)』: 조사해보니, 『한서』 지리지에는 낙랑군에 운장이 있다(『索隱』案: 地理志樂浪有雲鄣)”는 문장이 있다. 여기에 이나바 이와기치는 ‘운장’은 곧 상하장(上下鄣)을 가리킨다’는 자신의 문장을 삽입해 마치 『사기』 「조선열전」에서 운장을 곧 상하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뒤섞어 놓은 것이다. 낙랑군에 있는 운장이 상하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원문과 자신의 문장을 구별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뒤섞어 놓아서 자신의 문장이 『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치는 수법이다.

- 25)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이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빈땅인 상하장에 거주했다(渡浪水, 居秦故空地上下鄣)’고 나오는데, 이 대목에 『사기 색은』에서 “조사해보니, 『한서』 「지리지」에 낙랑군에는 운장이 있다(『索隱』案: 地理志樂浪有雲鄣)”고 주석을 달았다. 운장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위만이 도읍한 왕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사기 주석가들이 위치를 비정해 놓았다.

“『사기집해』, 서광이 말하기를 ‘창려에 함독현이 있다’고 했다. 『사기색은』, 위소가 말하기를 ‘옛 읍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서광은 ‘창려에 함독현이 있다고 했다’, 응소가 주석하기를, ‘지리지에는 ‘요동의 함독현이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라고 해냈다. 신찬은 말하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

『위략(魏略)』²⁶⁾에 이렇게 일렀다.

“이때에 이르러 한나라에서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으로 삼으니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삼게 되었다.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은 망명하는데, 호복(胡服)을 입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準王)에게 항복했다. 준왕을 설득해 서쪽 경계에 거주하기를 구해서 중국의 망명자들로써 조선의 변방(藩屏:울타리)이 되겠다고 했다. 준왕이 이를 믿고 총애해서 박사(博士)를 제수하고 홀(圭)을 하사하면서 백리의 봉토를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명했다(『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韓)조’)

及漢以盧綰爲燕王，朝鮮與燕界於溟水，及綰反入匈奴，燕人衛滿亡命，爲胡服，東度溟水，詣準降，說準求居西界，故中國亡命爲朝鮮藩屏，準信寵之，拜爲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邊(『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

본문에 따르면, ‘운장’은 ‘기준(箕準:기자조선 임금 기준)의 서쪽 경계(西界)’로서 한(漢)과 조선(朝鮮)의 변방(邊疆)에 걸리고, 패수 연변(沿邊)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리의 봉토를 주어서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했다(封之百里，令守西邊)”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략 상하장(上下鄣)의 전체 강역(全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도 이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수성(遂成)이 곧 지금의 수안(遂安:황해도)이라는 것’은 『고려사』 지리지에, “수안은 본래 고구려 장새현이다. 일운 고소어라고 한다(遂安本高句麗鄣塞縣(一云古所於))”라고 보인다.²⁷⁾

서남(西南)에 자비령(慈悲嶺)이 있고, 동북(東北)에 요동산(遼東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비령은 험(險)해서 경성 의주 간의 가장 험준한 길(最難阪路)이라고 일컬어지고, 대동강 유역과 한수(漢水)의 하우(河盂:물이란 뜻인 듯)는 수안(遂安) 부근의

다’고 했다.(『사기』 「조선열전」, 험독현 주석)

(『集解』徐廣曰:「昌黎有險瀆縣也」『索隱』韋昭云「古邑名」，徐廣曰「昌黎有險瀆縣」，應劭注「地理志遼東險瀆縣，朝鮮王舊都」臣瓚云「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史記』 「朝鮮列傳」險瀆縣 註釋)

이나바 이와기치는 하북성 창려에 있다는 험독현을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으로 비정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쓴 것이니 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주석들을 못본 채 하고 대동강 남안으로 비정해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나바 이와기치의 이런 창작이 현재까지도 한국 주류 식민사학계의 정설로 행세하고 있다.

26)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韓)조’에 삽입된 『위략(魏略)』을 뜻하는데, 현재 위략 자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27) 이나바 이와기치는 낙랑군 수성현(遂城縣)을 황해도 수안현(遂安縣)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수(遂)자가 같다는 것인데, 아마도 고구려 때 장새현(獐塞縣)으로서 새(塞)자가 들어가는 것도 감안했을지 모른다. 해당 조항의 고려사 해석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수안현은 본래 고구려 장새현이다(일설에는 고소어라고도 한다), 신라 때는 서암군이 관할하는 영현(領縣)이었는데 고려초에 수안으로 개명하고, 곡주(谷州) 관할로 소속시켰다가 후에 현령을 두었다. 충선왕 2년에 원나라의 사랑을 받는 환관 이대순(李大順)의 요청으로 수주(遂州)로 승격시켰다(일설에는 이 군사람 이연송(李連松)이 나라에 공로가 있다고 군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고려사』 58권, 지리지 3, 서해도)

「本高句麗獐塞縣(一云古所於)，新羅時，爲栖巖郡領縣。高麗初，改今名，屬谷州任內，後置縣令。忠宣王二年，以元嬖宦李大順之請，陞爲遂州(一云，以郡人李連松，有勞於國，陞爲郡)(『高麗史』 卷五十八，「地理志」三，西海道)

『고려사』 지리지를 통해서 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랑군이 설치된 지 1천여년이 지난 고려 때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나바가 기댔던 수(遂)자 한 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산맥에서 남북을 가르는 것이라 되어 있다. 자비령은 곧 ‘절령(岳嶺)’으로, 고려 원종(元宗) 때 몽고와의 국경 경계(國界)에 관계된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황해도 서흥도호부(瑞興都護府)의 산천(山川)조에, “자비령(慈悲嶺)은 부(府)의 서쪽 60리에 있는데, 일명 절령(岳嶺)이라고 한다. 평양에서 서울로 통하는 옛길이다. 세조 때에 호랑이의 피해가 많았고, 또 중국 사신이 대개 극성로(棘城路)로 통행했으므로, 그 길은 드디어 폐지되었다(『輿地勝覽』黃海道, 瑞興都護府, 山川 條에 이것을 기록하여 이르기, “慈悲嶺, 在府西六十里, 一名岳嶺, 自平壤通京都舊路也, 世祖朝以多虎害, 且中朝使臣, 皆由棘城路以行, 其路遂廢”²⁸⁾라고 했으니 이로써 이길을 오가는 것의 어려움을 알 만하다. 직접 다녀본 사람(親歷者)의 설에 따르면, 가장 경사가 급한(最急) 곳은 높이가 약 80간(間)이고 경사가 3분의 1 가량이고 수목이 울창(樹木鬱蒼)하며 절벽(斷崖)이 깎아지른 듯하다. 고개길(阪路)은 돌이 겹겹이 쌓였는데(石層重疊) 가운데를 가는 것(中央轡)처럼 약방의 벼루같은 형상(藥研之狀)을 이루고 이리저리 굽어서(迂餘曲折) 보행조차 또한 어렵다고 할 만하다.²⁹⁾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遂安)의 강역(境)에서 기(起)하여 대동강 상원(上源)으로 나와서 청천강(淸川江)을 끊고(截), 서북으로 달려, 압록강 및 동가강(修家江)의 상원(上源)을 돌아서 개원 동북 지역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한서』 「지리지(漢志)」에 의해서 의심할 바 없다³⁰⁾(참고로 말하자면, 낙랑군 패수(溍水) 조(條)에 패수(溍水)의 해외(塞外)에서 온(來)다고 말하지 않았고, 요동군 번한(番汗) 조(條)에 패수(溍水)는 해외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현도군(玄菟郡) 고구려 조(條)에, “남소수는 서북으로 해외를 지난다(南蘇水西北經塞外)³¹⁾”라고 있는 것이

28)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서흥도호부(瑞興都護府) 산천(山川) 조

29) 이런 문장을 일러서 연문(衍文)이라고 한다. 아무 내용 없는 군더더기일 뿐이라는 뜻이다.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비령이 험한 것을 잔뜩 나열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30) 이나바 이와기치는 진 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서』 「지리지」에 의해 의심할 것이 없다”고 썼다. 필자는 이미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를 앞에서 전제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뿐만 아니라 『한서』 「지리지」 전체에 한반도에 관한 서술은 단 한자도 없다. 한(漢)나라 사람들에게 동쪽 끝은 갈석산이었지 한반도 자체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31) 식민사학의 근거를 파헤치려면 이들이 근거라고 제시한 1차 사료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 『한서』 「지리지」 ‘현도군’조를 보자.

「현도군, 무제 원봉 4년(서기전 107)에 설치되었다-고구려를 왕망은 하구려(下句驪)라고 불렀는데, 유주(幽州)에 속해 있다(응소가 말하기를 옛 진번인데, 조선 호국(胡國:이민족 국가)라고 했다) 호수는 4만5천6호이고, 인구는 22만1천845명이다. 현은 셋이 있다. 고구려현-요산(遼山)에서 요수(遼水)가 나와서 서남(西南)쪽으로 요대(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 또 남소수(南蘇水)가 있는데 서북쪽으로 해외(塞外)를 지난다(응소는 옛 구려호(句驪胡:구려 이민족)이라고 했다) 상은대(上殷台)현-왕망은 하은(下殷)이라고 했다. 서개마(西蓋馬)현-마자수(馬訾水)가 서북쪽으로 염난수(鹽難水)로 들어가서 서남쪽으로 서안평(西安平)에 이르렀다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2개 군을 지나면서 2천1백리를 간다. 왕망은 현도정(玄菟亭)이라고 했다 (『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應劭曰:「故真番, 朝鮮胡國」)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隊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應劭曰:「故句驪胡」) 上殷台, 莽曰下殷.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漢書』 「地理志」 「玄菟郡」)」

이나바 이와기치는 고구려 조에서 “요산에서 요수(遼水)가 나와서 서남쪽으로 요대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는 앞 구절은 못본 체했다. 요수는 만주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남소수(南蘇水)를 끌어들이어 장성의 동쪽 끝이 수안임을 말해주는 문장

장성(長城)의 위치임을 개견(概見)할 만하다) 종래(從來)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애매모호함 속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지금 그 원인을 깊이 생각(覃思)하니, ‘평양 즉 왕험성’ 설은, 근본적인 의혹을 발생하게 하는 것(釀生)인데, 이 설(說)은 『괄지지(括地志)』에서 비롯되었다. 『괄지지』에는 이르기를,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은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이다. 옛날에는 조선땅이었다고 일렀다(高麗都平壤(一作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古云朝鮮地也)”

라고 했는데, 이 설이 나오고부터, 『통전(通典)』은, “그 왕이 거주한 평양성은 즉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인데 또한 장안성이라고 말했다(其王所居平壤城即漢樂浪郡王險城亦曰長安城)”라고 했고,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주석(註釋)에는 “평양 즉 왕험성이다(平壤即王險城也)”라고 했고, 『당서(唐書)』³²⁾ 「동이전」에 이르러서는,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땅은 동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지나서 백제에 이른다. 서북으로는 요수(遼水)를 건너 영주(營州)와 접하고, 북은 말갈과 접한다. 그 임금은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역시 장안성이라고 이르고, 한나라 때 낙랑군이다. 거리는 경사(京師:서안)에서 5천리 밖에 있다. 산의 굴곡을 따라서 외성을 쌓았는데, 남쪽은 패수와 접해있다(이하 생략)

“高麗, 本扶餘別種也, 地東跨海距新羅, 南亦跨海距百濟, 西北度遼水與營州接, 北靺鞨, 其君居平壤城, 亦謂長安城, 漢樂浪郡也, 去京師五千里而贏, 隨山屈縈爲郛, 南涯浪水, (下略)”

라고 명기(明記)해서 지금의 평양성이 곧 한나라 때의 낙랑군이라고 확인했다. 왕험성의 위치는 이렇게 오해되어왔다. 생각건대, 낙랑군은 한무제 원봉(元封) 3년에 개치(開置)되었다는 사실이 『한서』 지리지에 실려있다. 그 다스리는 치(治)를 조선현(朝鮮縣)이라고 했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이때는 효혜(孝惠:서기전 195~188)·고후(高后:188~180)의 시대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다. 요동태수는 곧 위만(衛滿)을 외신(外臣)으로 삼겠다고 약속해서, 새외(塞外)의 만이(蠻夷)들이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 만이의 군장들이 입조해서 천자를 뵈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했다.³³⁾ 천자도 이를 듣고 허락했다. 이로써 위만은 병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의 소읍(小邑)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眞番)과 임둔(臨屯)도 모두 와서 복속해서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쯤되면 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32) 이는 『신당서(新唐書)』 「고구려 열전」의 내용이다. 『구당서』는 이와 조금 다르다 보통 『당서』라고 하면 『구당서』를 뜻한다.

33) 식민사학의 주장대로 고조선이 평안남도에 있었다면 만주의 여러 나라들이 장안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았겠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右渠) 때에 이르러서 한나라의 망명자들을 유인한 것이 자못 많았고, 또 입조해서 천자를 뵈지 않았고, 진번(眞番) 주변의 중국(衆國: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뵈고자 해도 모두 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원봉 2년(서기전 109) 한나라 사신 섭하가 우거를 설득했지만 마침내 천자의 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섭하는 돌아가면서 국경인 패수에 이르러서 마부를 시켜서 전송하러 나온 고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죽이고 즉시 패수를 건너서 요새로 달려들어갔다. 마침내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했는데, 상(上:한 무제)가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겨서 꾸짖지 않고 섭하를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로 삼았다.『사기』「조선열전」)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保塞外蠻夷，無使盜邊，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勿得禁止，以聞，上許之，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傳子，至孫右渠，所誘漢亡人滋多，又未嘗入見，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又擁闕不通，元封二年，漢使涉何誘諭右渠，終不肯奉詔，何去至界上，臨涓水，使御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卽渡，馳入塞，遂歸報天子曰，殺朝鮮將，上爲其名美，卽不詰，拜何爲遼東東部都尉(『史記』「朝鮮列傳」)

‘한(漢)과 조선’은 『위략(魏略)』의 설과 마찬가지로, 패수(涓水)를 경계로 여기고, 원봉(元封) 2년(서기전 109),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조선을 떠날 때, 전송해서 경계상(境界上)의 패수에 임(臨)했다고 되어 있다. 섭하가 이미 조선의 비왕(裨王)을 찔러 죽였다. 즉 ‘도(渡:건너다)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패수를 가리킨다. 도(渡)한 뒤에 요새(塞)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한(漢)의 요새(鄣塞)는, 지금의 대동강의 북안(北岸), 평양 방면에 좇아서(沿) 축조되기 시작(起築)했다는 것으로서, ‘왕험 즉 평양성’이라는 이치의 근거(理據)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강역(疆域)이, 춘추시대에 있어서는 서쪽으로 요동(遼東)을 겸병(併)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연(燕)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그 변수(邊陲:변경)를 상실하고, 진(秦)나라가 땅을 개척(開拓)하는 날에는, 만번한(滿潘汗)을 가지고 경계로 삼은 사실은 이전의 설(前說)대로인데, 조선후(朝鮮侯)는 이때 이미 패수 이남 지역으로 물러나고, 물이 험한 것(水險)을 이용해서 서수(西陲:서쪽 변경)를 지켰다고 생각된다. 진이 망하고 한(漢)이 일어났다. 한은 진나라 변경 요새(秦塞)가 멀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물러나 대동강 북안(北岸)에 이르렀다.

진(秦)나라의 옛 빈 땅인 상하장(上下鄣)은 그래서 일단 조선이 회복하게 되었지만 위만(衛滿)이 망명했을 때 조선은 다시 이것을 공탈(攻奪)당했다. 『사기』「조선열전」에 이르기를, “위만이 망명할 때 그 무리 1천여 명을 모아서 복상투를 들고 만이(蠻夷) 복장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빈땅인 상하장에 살았다. 점차 진번, 조선의 만이(蠻夷) 및 옛 연(燕)·제(齊)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는데, 왕험에 도읍했다(滿亡命聚黨千餘人，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涓水居秦故空地上鄣，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고 했으니, 왕험성이 대동강 남쪽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착오(差謬)가 없다.

왕험성이 조선의 치소(治所)였다는 것에 사한(史漢:『사기』『한서』)이 모두 동일하다면 의심을 품을 만하지 않은데, 나(吾人)는 한 무제가 처음 설치한 낙랑군이 조선현(朝鮮縣)에 치소를 두었음을 안다. 그래서 조선현의, (위만이 왕험성에 치소를 두었음을 앞으로써), 낙랑군의 치소(治所)가 왕험성이라는 것 또한 차오(差謬:착오, 오류)가 없다. 신찬(臣瓚)이 이르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險城在樂浪郡, 溟水之東也)”라고 했으니, 왕험성을 패수의 동쪽(溟水之東)으로 여겼다는 것으로서 신찬의 설(說)이 옳다. 다만 『후한서』 「요동속국(遼東屬國)」의 아래 험독(險瀆)의 주석(注)에, “응소가 말하기를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한 데에 의지했으므로 험독이라고 했다(應劭曰, 朝鮮王滿所都也, 依水險故曰險瀆)”라고 되어 있는 설(說)에 서로 끌어다 합쳐서(牽合)하여, 험독(險瀆)에 비겨서(擬) 왕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차오는 마침내 후세 『괄지지(括地志)』의 차오(差謬)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괄지지(括地志)』에서 평양이 왕험성이라는 설을 냄에 따라서 『통전』·『후한서』의 주석과 또 『당서』 등에 저런 착오를 낳은 것인데, 패수의 비정(比定)은 그래서 심한 분규(紛糾)를 초래했다.³⁴⁾

정약용(丁鏞)의 「패수변(溟水辨(『한강역(韓疆域 卷八)』」³⁵⁾은 『괄지지(括地志)』 때문에 어긋난 총설(叢說)이고, 정밀하고도 박학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나카 박사(那珂博士)³⁶⁾라 하더라도, 이것과 동일한 경로(徑路)를 이탈하지 못했다. 그 설은 대개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기』의 패수, 즉 압록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마천의 차오(差謬)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설(說)³⁷⁾에 이르기를 “연나라와 (고)조선은 패수를 경계로 획정했으니, 만약 대동강이라면 이는 대동강이 패수에 해당하는데 어찌 다시 조선에서 회복할 수가 있었겠는가? 왕험성은 평양이다. 위만이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저절로 평양을 다시 도읍으로 삼았다면, 패수는 압록강이 된다. 이미 명백하지 아니한가?(燕與朝鮮劃溟爲界, 若以大同江, 當此溟水, 豈復有朝鮮乎, 王險者平壤也, 滿既渡大同, 自不得復都平壤, 溟水之爲鴨綠, 不既明乎)”라고 말했다.³⁸⁾ 또한 이르기를 “우거의 궁성은 패수의 서쪽에 있

34) 이나바 이와기치는 ‘낙랑군의 치소가 왕험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서』 「지리지」의 주석자 응소(應劭)는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이고, 요동군 험독현이 위만조선의 도읍인 왕험성 자리라고 달리 말했다. 이를 착오하고 주장하는 것인데, 2세기 말의 학자 응소가 왜 착오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에 있다는 신찬의 말이 맞다는 이나바의 말 대로라면 왕험성은 대동강 동쪽 강원도나 함경남도에 있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35) 이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6집 『지리지』 권3 『강역고(疆域考)』의 「패수변(溟水辯)」을 뜻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저서에 『한강역(韓疆域)』이란 편명은 없다.

36) 메이지 시대의 역사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1851-1908)를 가리킨다. 나카 미치요는 메이지시대의 역사학자로 일본에서는 동양사(東洋史)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대표작은 중국 통사인 『지나통사(支那通史:1888~1890)』인데 미완이었다.

37) 여기에서 말하는 설은 정약용의 『강역고(疆域考)』의 「패수변(溟水辯)」을 뜻하는 것이다.

38) 정약용은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 다음 문장에서 “지금 사람이 혹 이 문장을 가지고 류하(대요수)를 들어서 패수로 삼았는데, 그 오류가 크다. 한나라가 일어나서 요동의 옛 요새를 회복했으니 이는 곧 이미 요하를 건넜다는 뜻이다. 이미 요녕(遼寧)을 건넜는데, 다시 요수로써 경계를 삼았겠는가? 요하와 압록강 사이에는 큰 강이 없다. 패주는 압록강이다(又按今人. 或執此文. 又以巨流河(大遼水). 爲溟水. 尤大謬也. 漢興. 復修遼東故塞. 則既度遼矣. 既度遼寧. 復得 以遼水爲界乎. 遼河鴨水之間. 更無大水. 溟水者. 鴨綠也)라고 주장한데서 명확해진다. 정약용은 성호 이익을 사숙(私淑)했다지만 지리 지식은 이익의 탁견에 크게 못미친다. 이익은 기간의 통설을 뛰어넘는 통찰

는데, 곧바로 패수에 임했다면 섭하가 어찌 패수의 경계에 임해서 갈 수 있었겠는가? 또 패수를 건너서 요새로 달릴 수 있었겠는가? 패수는 압록이다(右渠宮城在溟水之西, 直臨溟水, 涉何安得去至界而臨溟水, 又安得渡溟水而馳入塞乎, 溟水者鴨綠也)”라고 했다. 원봉(元封) 2년(서기전 109년) 가을, 좌장군(左將軍) 순체(荀彘) 등이, 조선을 친 것을 해석해서, “좌장군 순체가 요동에서 나와서 또한 압록강 서쪽에 있었지만 양복은 평양에서 패전해서 산중으로 도망갔다. 다시 바닷가로 나와서 가도(槎島) 앞의 바다를 따라서 서쪽으로 굴룡산(窟窿山:봉성(鳳城) 남쪽 2백리에 있다) 아래 도착해서 좌장군과 함께 서로 회담했으니, 만약 패수가 대동강이라면 어찌 이를 해석할 수 있었겠는가?(又按左將軍出遼東, 尚在鴨綠江西, 而楊僕敗於平壤, 逃自山中, 還出海口, 從槎島前洋, 西至窟窿山下(在鳳城南二百里)下陸, 與左將軍相會也, 若云溟水是大同, 何以解矣)”라고 말해서, 위만(衛滿)의 군사는 압록강 서북으로 나왔는데, 한나라 군사는 그것을 격파해서 평양 서북을 포위했다고 해석했다.

정약용의 이 설의 착오는, ‘왕험성은 평양이다(王險者平壤也)’라고 오신(誤信)한 데 바탕을 둔다. 이미 평양을 ‘낙랑군의 치소(治)’라 여기고, 위만의 거주하던 성(居城)도 이것에 다름 아니라 여긴 이상, 한(漢)과 조선의 경계는, 평양 이서의 지역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건넌 것도, 가리켜 압록수(鴨綠水)라 여기고, 누선장군(樓船將軍)이 패한 것도, 평양에 있었다고 추측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정약용(丁鏞)의 설을 따라서 ‘평양 즉 왕험성’이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진(秦)의 강역에서 구하면 위만이 거주한 곳은 진(秦)의 상하장(上下鄣)이고, 대동강 서안(西岸)은 장성(長城)이 일어난(起) 곳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의주(義州) 창성(昌城)의 지(地), 압수(鴨水)의 경계일까? 그렇지 않다면 압수의 서(西), 지금의 수책(樹柵) 동두(東頭)의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정약용의 설은 오히려 모순의 경향이 없지 않다.³⁹⁾

두 번째는 지금의 대동강은 패수(溟水)라는 것이 『한서(漢書)』 「지리지(漢志)」에 이

이 있는 반면 정약용은 기존 학설에 충실한 편이다.

39) 이나바 이와기치의 이 구절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6집 『지리지집』 권3 『강역고(疆域考)』의 「낙랑고(樂浪考)」를 뜻하는 것이다. 해석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기』의 「태강지리지」에서,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통전』에서는 ‘갈석산은 한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 (만리)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 지금 험한 장성은 동쪽으로 요수에서 끊겨 고구려로 들어가는데, 그 남은 자리가 아직도 있다.(상서에서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하(河)의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갈석은 즉 하(河)에 다다른 바닷가인데, 지금 북평군 남쪽 20여리인즉, 고구려 중의 왼쪽이 갈석이다.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 통전의 설과 같다면 수성은 곧 지금의 의주, 창성의 땅으로서 압록강의 경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 압록강 서쪽이니 지금 수책(樹柵:목책)의 동두(東頭:동쪽 끝)의 땅이다. 낙랑군을 설치한 처음에는 대개 중국에서 관리를 보냈지만 그 후에는 혹 추장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太康地理志云, 樂浪遼城縣, 有碣石山, 長城所起. ○通典云, 碣石山在漢樂浪郡遼城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 東截遼水而入高麗, 遺址猶存. (按尚書云, 夾右碣石入於河右, 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爲左碣石. ○鏞案若如通典之說, 則遼城, 當在今義州昌城之地, 鴨水之界. 不然, 或在鴨水之西, 今樹柵東頭之地也. 樂浪置郡之初, 皆自中國遣吏, 其後或以土酋爲長”

정약용은 이 글에서 낙랑군 수성현을 의주, 창성의 압록강 경계든지, 아니면 압록강 건너 서쪽 만주의 목책의 동쪽 끝으로 보았다. 즉 정약용도 낙랑군 수성현을 만주 서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정약용은 낙랑군 수성현을 의주 창성이든지 아니면 압록강 건너 만주 서쪽이라고 본 것인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아무런 반증 자료의 제시 없이 그냥 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르러 바로잡혔다.⁴⁰⁾ 반고(班固)는 『한서』 「조선전(朝鮮傳)」을 편찬했을 때 순전히 『사기』의 문장에 의거했지만 「지리지」를 찬할 때는 『사기』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니 정약용의 설(說) 또한 궁색(窮)하다고 이를 만하다. 반고가 태사공의 오류를 알았다면 어찌 유독 지리지를 찬함에 그치고, 「조선전(朝鮮傳)」에 미치지 않았을 이치가 있겠는가.⁴¹⁾

세 번째 네 번째는, 요동(遼東) 개주(蓋州)의 니하(泥河)와 조선 평산(平山)의 저탄수(猪灘水)에 패(溍)라는 이름이 있다는 설이 있지만 지금 수록하기에는 부족하다.⁴²⁾ 근시(近時) 양성오(楊星畝:수경(守敬))⁴³⁾의 『수경주소요산(水經注疏要刪)』⁴⁴⁾은 패수조(溍水條)에서, 역도원 주석(酈注)의 차오(差謬)를 지적하고, 『사기』, 『한서(史漢)』 모두

40) 이나바는 『한서』 「지리지」에 의해 패수(溍水)를 대동강으로 바로 잡혔다고 했지만 『한서』 「지리지」 ‘낙랑군’ 패수현(溍水縣)에 대한 설명에서 “강이 서쪽 증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은 낙선정이라고 불렀다(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라고 말했을 뿐이다. 班《志》, 溍水出遼東塞外, 西南至樂浪縣西入海(사기 정의, 자치통감 권21)이것이 어떻게 패수가 대동강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가 되는 지 알 수 없다. 식민사학자들은 근거가 없을수록 단정 지어 말하는 공통 특징을 갖고 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險瀆縣)의 주석에서 ‘응소(應劭)가,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한 데 의지했으므로 험독이라고 불렀다(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라는 말이 나오고, 신찬(臣瓚)이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 이로부터 험독이라고 했다(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溍水之東, 此自是險瀆也」)는 말과 안사고(顏師古)가 ‘신찬의 설이 옳다(師古曰, 「瓚說是也」)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험독현이 요동군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반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라는 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41) 이나바는 『한서』 「조선전」에 반고가 『사기』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처럼 묘사했다. 『한서』 「조선전」에는 한과 고조선이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는 말이 나올 뿐이다. 다만 안사고가 ‘패수는 낙랑현에 있다(師古曰, 「溍水在樂浪縣」)고 주석했을 뿐이다. 또한 한나라 사신 섭하가 패수에 임해서 마부를 시켜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였다는 말이 나올 뿐이다. 그 주석에 안사고가 말하기를, ‘장은 비왕의 이름이다. 섭하를 전송하러 패수에 갔다가 섭하에 의해서 찔려 죽었다(師古曰, 「長者, 裨王名也. 送何至溍水, 何因刺殺之」)고 주석했을 뿐이다. 식민사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습성일 뿐이니 학자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42) 아무 내용이 없거나 전혀 반대의 내용을 이름만 엉뚱하게 적어 놓고 마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인 것처럼 바람 잡는 것도 식민사학자들의 수법 중 하나이다. 『요사(遼史)』 「지리지」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조에 ‘패수가 있는데 또한 니하라고도 한다. 또 현우락이라고도 하는데, 물에 현우(葑芋: 토란)이 많기 때문이다(溍水, 亦曰泥河, 又曰葑芋瀾, 水多葑芋之草)’라는 말이 있다. 동경요양부 역시 만주 서쪽이다.

43) 양수경(楊守敬:1839~1915)은 청나라 말기의 역사 지리학자이자 금석문자학자로 자는 성오(惺吾),이고 호는 린소(鄰蘇)인데, 호북(湖北) 선도(宜都)사람이다. 이나바 이와기치가 양수경을 높이 평가한 후로 이병도를 비롯한 한국인 제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1904년 제자 옹회정(熊會貞)과 함께 『수경주(水經注)』에 주석을 단 『수경주소(水經注疏)』를 편찬했다. 그는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수경(水經)』의 내용을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나바와 이병도 등의 생각과 부합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것이다.

44) 『수경(水經)』의 패수에 대한 경문(經文:원문)은, ‘패수는 낙랑 루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으로 임패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溍水出樂浪鑊方縣, 東南過臨溍縣, 東入于海)’는 것이다. 여기에 북위(北魏)의 지리학자인 려도원(酈道元:466 혹 472~527)이 주석을 단 것이다. 려도원은 패수가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는 구절에 의문을 품고 주석을 단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

注수경주소요산(水經注溍水出樂浪鑊方縣, 東南過臨溍縣, 東入于海).

許慎云: 溍水出鑊方, 東入海. 一曰出溍水縣. 《十三州志》曰: 溍水縣在樂浪東北, 鑊方縣在郡東. 蓋出其縣南經鑊方也. 昔燕人衛滿自溍水西至朝鮮. 朝鮮, 故箕子國也. 箕子教民以義, 田織信厚, 約以八法, 而下知禁, 遂成禮俗.

戰國時, 滿乃王之, 都王險城, 地方數千里, 至其孫右渠.

漢武帝元封二年, 遣樓船將軍楊僕、左將軍荀彘討右渠, 破渠于溍水, 遂滅之. 若溍水東流, 無渡溍之理,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 言城在溍水之陽. 其水西流經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溍水西至增地縣入海. 又漢興, 以朝鮮為遠, 循遼東故塞至溍水為界. 考之今古, 于事差謬, 蓋《經》誤證也.

패수(溟水)는 지금의 대동강을 말함을 상세히 설명(詳說)하고 아울러 왕험성의 위치를 논급한 것이 있어, 제출하여 아직 못 본 인사들(未見之士)에게 보이려 한다. 그 문(文)에 이렇게 일렀다.

「력도원은 『수경주』에서,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건넌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땅은 지금 고구려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내가 번사(蕃使:고구려 사신)를 방문하니 성은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말했다(注若溟水東流, 無渡溟之理,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 言城在溟水之陽)

조씨는 응소의 설을 인용해서 험독이 조선왕의 도읍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험독이 요동에 있었다면 어찌 이 땅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응소가 진실로 틀린 것이다. 신찬은 패수가 낙랑에 있음을 알면서도 험독을 억지로 끌어들이었으니 이 역시 그른 것이다.⁴⁵⁾

趙氏引應劭說, 以險瀆爲朝鮮王都, 按險瀆屬遼東, 安得在此, 應劭固非, 臣鑽知溟水在樂浪, 而又牽合險瀆亦非也.

『괄지지』는 평양성이 왕험성인즉 고조선이라고 했고, 『후한서』 주석에 왕험성이 곧 평양이라고 한 이래 전거(典據)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대저 모두 이 주석과 고구려 사신이 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말한 설을 따랐을 뿐이다. 내가 『한서』 「조선전」을 읽어보니, 왕험성은 패수의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니, 평양성은 왕험성이 아닌 것이다.

括地志, 平壤城卽王險城, 古朝鮮也, 後漢書注, 王險城卽平壤, 以後則無不以爲典據者, 大抵皆本此注蕃使言城在溟水之陽爲說, 余讀史漢朝鮮傳, 而知王險在溟水之南, 平壤城非王險城也.

그 증거는 넷이 있다.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으로서 평양성은 대동강의 북쪽에 있다. 그런데 『사기』, 『한서』는 위만이 패수를 건너서 왕험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그 증거가 하나이다.⁴⁶⁾

其證有四. 溟水今大同江也, 平壤城在大同江之北, 而史漢並言滿渡溟水都王險, 證一也.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서 제나라 바다를 따라 떠서 열구(소림은 바다를 건너면 먼저 닿는 현이기에 열구현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말했다)에 닿았고, 좌장군 순체는

45) 『수경(水經)』 원문은 “패수는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한반도 내의 강들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면 함경도나 강원도 동쪽의 강들이기 때문에 위만이 패수를 건너지 않고도 왕험성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양수경(楊守敬)은 고조선이 한반도 내에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위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의 수도가 한반도 내라는 전제 아래서 험독이 요동에 있으면 어떻게 조선왕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46) 이천여년 전의 위치 비정을 하면서 지금의 대동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양수경(楊守敬)의 고증 방법은 역사지리 비정의 기본에서 어긋난다. 양수경은 지금의 평양성은 대동강 북쪽에 있는데 위만은 패수를 건너서 왕험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왕험성은 패수의 남쪽에 있는 것으로서, 왕험성은 평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동으로부터 왔다. 이는 한나라가 누선장군은 해로로 그 남쪽을 공격하게 하고, 좌장군은 육로로 그 북쪽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누선장군이 먼저 왕험성에 도착했다가 군사가 패해서 산중으로 숨었는데 나아가고 물러남이 모두 패수를 건너지 않았다. 좌장군은 조선의 패수 서군을 공격했는데, 이는 순체가 조선군과 싸운 것인데, 오히려 패수의 서쪽이라고 했으니 왕험성에 닿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증거의 둘이다.⁴⁷⁾

遣樓船將軍楊僕 從齊浮海至列口(蘇林曰縣度海先得名之)左將軍荀彘由遼東, 是漢以樓船, 由水道攻其南, 左將軍由陸路攻其北, 樓船先至王險, 軍敗遁山中, 進退皆不言渡溟水, 左將軍擊朝鮮溟水西軍, 是荀彘與朝鮮戰, 尚在溟水之西, 未能至王險城證二也.

우거가 항복하기를 원해서 태자를 보내서 사죄하려고 했는데, 막 패수를 건너려 하다가 패자는 좌장군이 자신을 속여서 죽이려는 것으로 의심해서 패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돌아서 복귀했다. 이것이 증거의 셋이다.⁴⁸⁾

右渠願降遣太子入謝, 方渡溟水, 太子疑左將軍詐殺之, 遂不渡溟水, 復引歸, 證三也.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정했는데, 낙랑군의 치소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으니, 왕험 고성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멸망 이후부터 고려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환도성(환도성은 압록강 동북에 있다)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삼국 때 위나라 관구검에게 무너져서 고구려 동천왕이 남옥저로 달아났다. 위나라 군사가 퇴각한 후 평양(『조선사략(朝鮮史略)』을 보라)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그때 낙랑·대방은 모두 위나라에 속해 있던 군(郡)이었다. 고구려가 패해서 빼앗긴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낙랑군의 군치를 빼앗았다. 이것이 증거의 넷이다.⁴⁹⁾

武帝滅朝鮮, 定爲四郡, 以樂浪郡治仍名朝鮮, 其因王險古城可知, 自朝鮮滅後, 高麗始興, 都丸都城(丸都在鴨綠江東北)至三國時, 魏毌邱儉所破, 王奔南沃沮, 魏兵退時移都平壤(見朝鮮史略)其時樂浪帶方皆爲魏屬郡, 不容高麗以喪敗之餘, 奪其樂浪郡治, 證四也.

47) 양수경의 논리는 이렇다. 누선장군 양복은 바다를 건너 먼저 열구에 닿아서 왕험성을 공격했는데 나갈 때나 퇴각할 때 패수를 건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험성이 평양성이라면 열구(서해 입구)에서 그 북쪽의 평양성을 공격하려면 패수(대동강)를 건너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장군 순체는 육로로 왕험성 북쪽을 공격했는데 패수 서군과 싸웠을 뿐이고 왕험성에 닿지 못했다는 것이다. 왕험성이 평양성이라면 직접 왕험성을 공격했어야 하는데, 패수 서군과 싸웠으니 왕험성은 패수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결론을 내려놓고 하위논리를 꿰어 맞춘 것이다.

48) 왕험성이 지금의 평양성이라면 패수는 평양성 남쪽에 있어야 한다. 태자가 패수를 건너려다 건너지 않고 복귀했으니 패수는 평양성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49) 이는 고구려의 평양성이 대동강 북쪽의 평양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기술한 것일뿐이다. 양수경이 왕험성이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라고 든 증거의 넷은 모두 근거가 없다. 다만 이나바 이와기치나 양수경이나 모두 패수가 지금의 대동강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왕험성이 대동강의 북쪽에 있었는지, 남쪽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중이라는 점이다.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므로 따라서 왕험성은 현 대동강의 북쪽에도, 남쪽에도 있지 않았다. 이들은 비유하자면 서라벌의 위치를 논하면서 금강의 북쪽이었는지, 남쪽이었는지를 따지는 셈이다. 이런 논리가 아직도 주류 식민사학계의 주류 이론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는 평양성이 왕험성이 아님을 살피본 것이다. 고서의 연원은 심오하고, 성의 강은 흘러서 이동한다. 비록 고구려 사신의 본토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도 또한 그 상세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요산(要刪)』 14권을 보라)⁵⁰⁾

是平壤城非王險城審矣。古書淵奧，城池流移，雖蕃使自言本土，亦不得其詳也(要刪卷1十四)」

양성오(楊星誦:양수경)의 해석은 『괄지지(括地志)』 이래 천여 년에 이르는 차오(差謬)를 바로잡아 왕험성이 평양성이 아님을 깨뜨려 말한(道破) 것 그 공은 탁월하고 위대(卓偉)하다 할 만하다. 패수(溟水)는 그래서 지금의 대동강이라는 것, 『사기』·『한서(史漢)』 모두 설(說)을 하나로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압록수(鴨綠水)가 마자수(馬訾水)라는 것도, 또한 예부터 깨달은(諭)⁵¹⁾한 바가 없었다.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동쪽 끝) 및 동부(東部)의 위치도 크게 천명(闡明)되기에 이를 만했다. 오인(吾人)은 여기에 있어서 마쓰이(松井) 문학사(文學士)의 “한대(漢代)에 있어서는 진 장성의 동단은 요동이라 여겼었는데 진대(晉代)부터, 이것을 지금의 조선 서북부 변경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해설은 『사기』·『한서(史漢)』의 「조선열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전연(全燕:연나라 전성기)의 영역 및 진(秦)의 요동군의 변경 경계(邊界)를 거꾸로 잃어버린(遺却) 경향이 있음을 재언(再言)하고자 한다.

왕험(王險)은 이미 평양이 아니다. 그것을 대동강 남쪽에서 구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지당(至當)하지만, 오인(吾人)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수안(遂安) 서북쪽, 대동강 동남쪽 지역에 비정(比定)하는 것을 얻은 외에, 조선현 즉 낙랑군의 치성(治城) 왕험(王險)은 명백히 그것이라 비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선달(昨臘) 중 세키노(關野貞)⁵²⁾ 공학박사 등이 발견한 대동강면(大同江面:대동강 남쪽(大同江南))의 유분(遺墳)에서는 수개(數個)의 한나라 거울(漢鏡), 칼(刀), 창(矛), 한나라 동전(漢錢)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분(遺墳)의 고전(古磚:옛 벽돌)의 문양 등이 전혀 한나라와 위나라 사이(漢魏之際)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쩐지 오인(吾人)으로 하여금 낙랑 치소(治所)의 유허(遺墟)에 닿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지 않다.

「조선열전」은 생각해보면,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먼저 성 아래에 도달해서 그 서북을 포위했다(在將軍破溟水上軍，及前至城下，圍其西北)고 해서 순제(荀彧)의 군사는 아직 (황해도) 봉산(鳳山), 서흥(瑞興), 및 수안(遂安)에 이르지 못했는데 즉시

50) 복위의 력도원은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수경』의 내용에 의문을 품고 고구려 사신을 만나 물었더니 고구려 사신이 평양성은 대동강의 북쪽에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를 『수경주』에 실어서 패수는 서쪽으로 흐른다고 말한 것인데, 이들은 패수가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맞지만 대동강 북쪽에 있는 평양성이 옛 왕험성이라고 본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대동강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1) 원문은 ‘諭る’지만 즐겁다, 구차하다는 의미의 ‘愉’로는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諭る’로 바꾸었다.

52) 세키노 타다시(關野貞:1868~1935)는 도쿄대 공학부 건축학과(造家學科)를 졸업하고, 도쿄대 교수를 역임했다. 건축사가(建築史家)인데, 1910년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한반도 내 중국계 유물·유적들을 조사해서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보고서에서 이 모든 유물들을 모두 ‘우연히’ 발견했다고 서술해서 의문을 남겼다.

왕험성을 포위하였다. 이 일사(一事)는 더욱 오인(吾人)이 유의할 가치가 있다.

동박사(同博士:세키노)의 설(說)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고분들이 대동강 남쪽에 걸쳐 무수히 존재한다고 파악되었다. 과연 이 사이를 잘 편력하면 왕험의 옛 터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겠는가. 우리는 더욱 동박사의 보고를 고대하여 세론해야만 한다.

Ⅲ. 나가는 글

이나바 이와기치가 마지막으로 세키노 타다시의 보고를 고대하여 세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잘 짜여진 각본을 말해주고 있다. 세키노 타다시는 1909년 조선총독부의 자금으로 평양의 석암리 유적을 발굴했지만 고구려 유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09~1910년 동안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등이 평양 대동강 좌안의 3기의 고분을 발굴하면서 낙랑군시대의 고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석암리 고분에서 왕씨(王氏)라는 명문이 나온 칠기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낙랑군 왕씨의 유물이라고 주장했고, 세키노도 받아들이게 되었다(關野貞, 「樂浪帶方兩郡の遺蹟及遺物」)

이후 1913년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이나바 이와기치(今西龍)·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등은 대동강 남쪽의 대동면 토성리를 낙랑군을 다스리던 치소가 있던 치지(治址)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런데 1913년 9월 23일, 이마니시 류와 야쓰이 세이이치는 대동강을 건너는 배 안에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토성리에 토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낙랑군 시대의 것이라고 직감하고 성공을 예감했다고 말하고 있다. 가 보기도 전에 낙랑군 유적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동강 남쪽 대동면 토성리는 낙랑군 조선현으로 조작되었는데, 후지타 료오사쿠(藤田亮策)는 “이 땅을 낙랑군치지(樂浪郡治址)로 보는 것에 많은 역사가들이 의문을 가졌다.”⁵³⁾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 트인 곳이라 왕험성 자리로 보기에는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랑군=평양설’이 조선총독부의 시책이었기 때문에 후지타 료오사쿠는 “그러나 이 넓고넓은 황야, 이 양양한 강안이야말로, 강하(江河) 유역에 나라를 만든 한민족(漢民族)이 가장 모여살기 좋아하는 땅이지 않겠는가.”⁵⁴⁾라고 대동면 토성리가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이라는 사실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선총독부에서 짠 각본에 따라 ‘낙랑군=평양설’이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낙랑군 수성현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우긴 것이다. 이런 역사를 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 박사가 표절했고, 이를 다시 후학들이 추종해서 『동북아역사지도』에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으로 표기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53)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昭和 23年(1948), 305쪽

54)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昭和 23年(1948), 305쪽

<참고문헌>

『고려사』
『동북아역사지도』
『명사(明史)』 「조선열전」
『사기』 「조선열전」
『사기』 「흥노열전」
『사기』 「화식열전」
『사기색은』
『삼국지』 「위지」
『수경(水經)』
『신당서(新唐書)』 「고구려 열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유당전서』 「지리지」
『요사(遼史)』 「지리지」
『통전』 「주군전(州郡典)」
『한서』 「지리지」
『후한서』 「군국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 『사학잡지(史學雜誌)』 제 21편(編) 제2호.

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昭和 23年(1948)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

-식민사관과 상관성-

임종권(송실대)

1. 문제제기 :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쟁점
2.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
3. '일제식 실증주의' (식민주의 사학, 식민사관)
4.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성격
5. 결론

1. 문제제기 :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쟁점

실증주의 사학은 원래 독일 역사학자 랑케가 최초로 수립한 근대 역사학으로써, 일제 식민통치시기 일본에 유학했던 이병도, 신석호, 이기백 등 한국 역사학자 1세대들에 의해 한국 역사학계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을 주도하고 이끌어 오면서 학계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상백은 “역사연구에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공식을 미리 가정하여 그것을 민족의 역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한국사의 실증주의는 자연법칙의 과학적 방법을 주장한 콩트식 실증주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듯이¹⁾ 한국 실증주의는 ‘랑케식 실증주의’로 정의되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 한국 역사학이 끊임없이 식민사관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근대 역사학이 일제 식민주의 사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 소위 ‘랑케식’이라고 하나 이는 방법론적인 것에 국한되며 그 내용은 다원적인 유기적 문화사의 성격을 띤 세계사 보편성을

1) 이상백, 『韓國文化史研究論攷』(을유문화사, 1947), 9쪽.

2) 이상백은 “역사의 과학을 실천하는 것은 근대 사학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실증주의 역사학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책, 6-7쪽. 특히 이기백은 마찬가지로 한국 사학의 실증주의를 콩트와 구별하여 실증사학을 고증사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백, 『韓國史學의 方向』, (일조각, 1997), 126쪽.

담고 있다. 이 역사관은 제국주의의 역사이념인 동시에 식민사관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고는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비교하여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를 분석하고 그 식민사관과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2.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철저한 고증과 사료비판을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을 추구하며 어떤 편견이나 사상 혹은 개인적인 판단을 배척하고 오로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 민족사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서술한다. 따라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방법론에서 과학적인 근대 역사학이지만 역사관으로 말하자면 세계사적 보편성보다 민족의 개별성을 중시한 민족주의 사학이다. 랑케는 역사 발전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민족과 국가를 제시하고 역사연구의 목표를 민족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은 내재적인 민족정신의 원리 즉 도덕적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랑케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정당성을 신이 부여한 신성한 것으로 파악했다.¹⁾ 이에 따라 모든 자주 국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생(生)과 삶의 과정을 겪어 왔으며 또한 이 삶은 자신들의 고유한 단계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은 모든 생명체처럼 멸망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는 그 자체 생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 개체이자 목적이며, 이 모든 것은 이념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 기원이 신에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랑케는 민족과 국가를 신성하고 인간 정신의 독창적인 창조물인 신의 사상(Gedanken Gottes)으로 정의했다.²⁾ 랑케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별적인 개체의 자율적인 생명체로 인식하고 신의 섭리에 의한 국가와 민족의 통합원리를 유기체론으로 설명하며 역사의 궁극적인 이상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 랑케는 민족과 국가를 역사 과정의 최종 단계로 인식했던 것이다.³⁾

특히 국가의 현존재는 민족정신이 구체화된 것이므로 국가란 현실적, 정신적 본질(das Real-Geistige Wesen)이다.⁴⁾ 그리고 민족과 국가는 개체성을 지니고 있고 자체의 고유한 삶의 법칙과 형식을 갖고 있다.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본질로서 민족과 국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추론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역사연구는 특수한 것 혹은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⁵⁾ 당연히 민족국가는 그 어떤 이

1) 랑케,『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신서원, 2014), 137쪽.

2) 랑케,『정치대담』, 윗 책, 137-138쪽.

3)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메타역사 :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제 1권, 천형균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 381-400쪽. 원저는 Hayden White, *Metahistory :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Century Europe*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이다. 특히 헤이든 화이트는 19세기 유럽 역사가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로망스, 비극, 희극, 풍자 등의 문학적 작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며 랑케의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유기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이든 화이트, 윗 책, 401쪽.

4) 랑케,『정치대담』, 윗 책, 131쪽.

5) 이 문제 대해 랑케 연구자들은 그에게서 특수와 보편이 다 같이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Leonard Krieger, "Elements of Early Historicism : Experience, Theory and History in

념이나 사상 혹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전복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결국 역사적 실체인 개별국가와 민족만이 역사적 발전의 개체성과 특수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근대 역사학 즉 란케 실증주의 사학은 곧 민족과 국가의 통합된 이념 속에서 탄생된 것이므로 역사는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 란케 실증주의 사학의 장점은 역사의 개체나 특수성이 전체나 보편성에 의해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이 개체와 특수성이 보편성을 인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이다.⁶⁾ 란케에 의하면 민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은 고유한 것이며 민족의 역사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때 여러 민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곧 역사법칙이며 보편적 세계사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란케는 개별성을 통해 전체 또는 보편성 즉 일반적인 목적을 인식할 수 없다고 비판한 헤겔의 견해에 대해 관념적이라며 공격하며 이와 반대로 보편성을 통해 역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⁷⁾ 궁극적으로 란케는 개체, 즉 개별성이란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서 벗어난 특수하고 고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개체가 곧 역사연구의 기초단위이며 개체에 대한 인식이 역사지식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각 민족의 개별적인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곧 보편적 세계사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란케의 견해에 따르면 각 민족의 개체, 역사의 각 개별적 민족의 역사가 역사연구의 기초가 된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기독교적 보편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 대신 민족이라는 보편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 시대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라는 개별적 역사관이 곧 보편적 역사관보다 더 중시되게 이르렀다. 전통적인 보편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각 민족들은 자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의 전통과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이러한 민족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민족의 역사는 보편적 세계사보다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보편적 세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각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역사연구에서 민족의 개별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일반성과 보편성 같은 추상적 개념을 배척했다. 각 개별적 민족의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일반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란케는 각각 개체, 개별적 민족의 역사가 각기 고유한 성격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⁸⁾ 왜냐하면 각 민족의 역사를 일반화 시키거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 민족의 역사는 무시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란케는 역사 발전의 기본적인 단위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민족과 국가는 특수한 개별적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과 국가 발전은 내재적인 정신의 원리에 따른다.⁹⁾ 그러므로 보편성 위에서 민족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족의 역

Ranke", *History and Theory*, Vol. 14, No. 4 (Dec., 1975), 1-14쪽. 그러나 사실상 란케는 특수성이 보편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역사 이론이다. 이상신, 「서문」, 란케,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17쪽.

6) 김기봉, 「란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호서사학』39집(2004), 158쪽.

7) Ranke, "The Pitfalls of Philosophy of History",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New York : Routledge, 2011), 17-19쪽.

8) Ranke, "On the relations of History and Philosophy", Georg G. Iggers ed., *위 책*, 5-7쪽.

9) Ranke, "Über die Idee der Universalhistory", in Herausgeben von Ludwig Dehio und

사에서 보편적 세계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역사이론의 기초이다. 다음은 이러한 란케 실증주의 사학이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을까.

3. ‘일제식 실증주의’ (식민주의 사학, 식민사관)

19세기는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절정기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일본 역시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다. 일본은 유럽의 열강과 마찬가지로 제국의 길을 선택하고 아시아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기 위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일본은 제국주의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중국과 조선에 비해 역사적으로 가장 빈곤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대안이 바로 란케 실증주의 사학이었다. 일본이 란케 실증주의 사학에 주목한 이유는 란케의 역사학이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기보다 유럽에서 가장 빈곤하고 약소국이었던 독일이 민족주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짧은 시기에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독일의 사례에 주목한 일본은 역사의 빈곤을 극복하고 제국의 길로 부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란케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하게 되었다.

다음은 일제가 란케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빈곤한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제국으로서 조선 식민화 과정의 정당화를 위한 소위 ‘식민주의 사학’을 어떻게 창안해 내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제가 란케 실증주의 사학을 전격 수용한 것은 그 역사학이 객관성보다 민족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역사학계는 란케 실증주의 사학이 지닌 객관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만들어 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란케 실증주의 사학의 사실성과 객관성으로 포장된 ‘제국주의적 사학’이었다. 일제는 이렇게 창안해 낸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이용하여 고취된 민족의 정신을 군국주의 패권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이다.¹⁰⁾ 일제 역사가들은 란케의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실증이란 방법론 외에 제국 이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란케의『강국론』으로부터 보편적 세계관을 편취했다. 예컨대 일본에서 최초로 란케를 연구한 스즈키 시게타키는 1939년『란케와 세계사학』이란 저서를 통해 “실증주의는 재미 없다”며 실증주의 사학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스즈키는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란케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한 주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오히려 란케 실증주의를 비판한 것은 일제가 란케로부터 순수한 근대 역사학이 아니라 자국의 이념에 맞는 이론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스즈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란케의 유산은 국가란 제각각 독자적인 생명을 잉태한 창조적인 개체라는 것, 즉

Walther Kienast, *Historische Zeitschrift* Band 178, (München: Oldenbourg, 1954), 291-301쪽.

10) 강상중 저, 이경덕, 임성모 옮김,『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126쪽. 시라토리 구라기치(白鳥庫吉)는 란케의 실증주의 역사에서 객관성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학을 넘어서는 역사철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 함동주 옮김,『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96쪽.

도덕적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란 그 발전 계기를 다른 여러 국가와 관계에 힘입는다는 것이다...또한 랑케는 위대한 침략자는 동시에 위대한 문화 전파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의 말은 충분히 음미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매개를 결여했을 때 하나의 국가는 세계에서 단순한 특수에 그치고, 구체적인 보편이 아니면 세계에서 지속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가는 세계사적 개념이라고 해도 좋다.”¹¹⁾

이처럼 스즈키는 랑케를 언급하면서 사료 비판 등 방법론이나 역사사상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고 국가의 가치와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추상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랑케의 세계사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온 보편적 역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스즈키는 유럽에서 패권을 차지한 독일과 일본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세계사적 일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는 랑케의 민족역사의 개별성과 특수성보다 보편적 세계사의 관점에 따라 일본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40년대 이와나미(岩波) 문고에서 1940년『강국론』그리고 1941년 랑케의『정치문답 기타 일편』번역됐고 1941년『세계사 개관-근세사의 제 시대』가 간행되는 등 번역된 랑케 저작들의 출판 붐이 일어났다.

이 번역들은 사료비판을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 역사관이 아니라 국가관과 세계사의 구상에 초점을 둔 것들로써, 랑케의 많은 저서들 가운데 일제의 이념에 맞는 것만 뽑아 수용한 것들이다.¹²⁾ 이와 같이 일제 역사가들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곧 역사적 법칙이라고 이해하여 이 같은 세계사적 보편성 이념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는 랑케가『강국론』에서 언급한 말이지만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세계사적 보편성으로써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역사가들이 강조하며 수용한 세계사의 보편성의 골자는 국가와 민족 간 상호 대립 관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므로 스즈키는 랑케가『강국론』에서 언급한 대립적인 국가

11) 이 인용문들은 스즈키가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전반에 걸친 교토학파의 저작이나 좌담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高坂正顯,『歴史的世界』, 京都哲學叢書 第25卷, (東京: 燈影舎, 2002); 高坂正顯,『歴史の意味とその方』, (東京: こふし書房, 2002); 高山岩南,『歴史の哲學』, (東京: こふし書房, 2001); 高坂正顯, 高山岩南, 西谷啓治, 鈴木成高,『世界史的立場と日本』, (東京: 中央公論社, 1943) 등 참조.

12) 사카구치(坂口昂)은 “랑케는 역사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의 역사관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저작 중에서 여기저기 추려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작업은 대개 교토학파들에 의해 이뤄졌다. 坂口昂,『獨逸史學史』(東京: 岩波書店, 1932), 407쪽. 이 시기 일본에서 간추려 번역 출간된 랑케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村川堅固 譯,『世界史論進講錄 Über die Epochen der Neueren Geschichte, Die grossen Mächte,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Theorien』(興亡史論刊行會, 1918); 阿部秀助 譯,『西州近世史 Geschichten der romanischen und germanischen Völker』(泰西名著歴史叢書 第5卷 (國民圖書, 1923); 相原信作 譯,『強國論 Die Grossen Mächte』(岩波書店, 1940); 相原信作 譯,『政治問答 他一篇 Politische Gespräch, Die historiae et politices cognatione atque discrimine』(岩波書店, 1941); 鈴木成高, 相原信作 譯,『世界史概觀-近世史の諸時代 Über die Epochen der Neueren Geschichte』(岩波書店, 1941); 講邊龍雄 譯,『프리드리히 대왕 Friedrich II. König von Preussen』(白水社, 1941); 小林榮三郎 譯,『랑케 선집 제6권 Abhandlungen und Versuche』(三省堂, 1943); 堀米庸三 外譯,『랑케선집 제4권-19세기 독일-프랑스사 Zur Geschichte Deutschlands und Frankreichs im neunzehnten jahrhundert』(三省堂, 1943); 西村貞二, 祇園寺信彦, 増田重光 譯,『랑케선집 제5권-傳記』(三省堂, 1943).

체제가 곧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비판하고 일본 스스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거하여 스즈키는 대동아 전쟁을 세계사적 사실이며 역사의 학문적 대상으로 삼았다.¹³⁾ 이것은 일본이 랑케의 세계사적 보편성 이념을 일제의 패권 정치이념에 전유한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니시다 기타로(西田機多郎)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랑케의『강국론』의 세계사적 보편성 개념을 빌어 대동아 공영과 조선의 식민의 정당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제의 역사학은 실증주의와 서술자의 주관이 결합된 독특한 역사관에 기초하여 민족과 국가를 역사연구와 역사서술의 주체로 삼았다. 물론 당시 일본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마르크스 유물론 사관이나 황국사관과 상호 대립적인 관점에 놓여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일제의 정치적 이념과 부합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제의 역사학계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무엇을 위한 개별 연구인가, 무엇을 위한 고증인가라는 담론이 1890년대 전후로 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객관성을 앞세워 국가권력이나 정치로부터 독립된 역사서술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황국사관은 역사적 객관성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제국으로 향하게 유도해 나갔다.¹⁴⁾ 이와 같이 일제의 역사가들은 현실을 앞세우며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왜곡하여 역사를 민족과 국가에 결부시킴으로써 객관성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일제 역사학계의 현상이 바로 식민통치 시기 한국 역사학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한 힘, 즉 ‘도덕적 에너지’말하자면 민족정신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역사가들은 랑케가『강국론』에서 의미한 민족국가와 역사의 개별성 및 특수성을 모두 빼고 강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온 세계사적 보편성만 역사연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본질이다. 이렇게 하여 일제 역사가들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왜곡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4.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성격

식민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은 둘 다 민족과 국가를 연구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방법론에서는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오늘 한국 실증주의

13) 고야마 사토시(小山哲),『‘세계사’의 일본적 전유-랑케의 중심으로』,도면회, 윤해동 역음『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113-117쪽.

14) 나가하라 게이이치(永原慶二) 지음, 하종문 옮김,『20세기 일본의 역사학』(삼천리, 2011), 140-141쪽.

15) 랑케, 『강대세력들』, 윗 책, 102쪽. 랑케는 역사 속에서 각 민족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각 민족국가들이 존속될 때 자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랑케의 역사사상은 세계사를 보편적 관점에본 세계 이성의 역사철학을 배척한 것이다. Leopold von Ranke, *Die großen Mächete. Pölitisches Gespräch mit einem Nachwort von Ulrich Muhlack* (Frnkfurt am Mein und Leipzig, 1995), 주 195.

16) 김종준,『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소명출판, 2013), 19-20쪽. 식민주의 사학에 대해서는 이기백, 김용섭, 홍이섭, 이만열 등이 선구적으로 분석하여 그 윤곽이 잡혔고 그 뒤에 식민주의 사학의 논리를 추적한 비판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조동걸,『現代韓國史學史』(나남출판,

사학이 민족주의 사학과 식민주의 사학의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근대 역사학의 첫발이며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역사학이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라는 개별성 그리고 세계사라는 보편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르다. 개별성으로 볼 때 실증주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보편성으로 볼 때 식민주의 사학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의 개별성과 보편성이란 두 대립적인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역사학은 민족역사의 개별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동시 추구하고 있어서 항상 내적인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역사학의 식민사관에 대한 논란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한국 근대 역사학은 일본 제국대학에서 일본인 역사학자로부터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배운 인물들과 조선 경성제국대학 출신들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일제 조선 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위해 추진한 조선사 편찬사업에 이들 역사학자들과 경성제국대학이 참여했는데 바로 이들에 의해 식민주의 사학이 만들어졌다.¹⁷⁾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는 조선과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착수된 조선사 편찬사업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조선사를 일본사의 일부로 편입시켜나갔다.¹⁸⁾ 우선 학교 교육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조선 역사보다 식민주의 사학을 강제로 가르쳐야 했다. 이로 인해 식민시기 말기에 이르면 한국 지식인들은 일본 역사를 달달 외우고 창시 개명을 자랑스럽게 여겨 점차 민족성을 잃어갔다.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 사학을 교육한 결과였다.¹⁹⁾ 이처럼 일제는 식민주의 사학을 통해 조선을 일본화 시켜나가는데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에 미친 식민주의 사학의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

해방 이후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일제히 역사학 방법론에 대한 이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역사의 보편성보다 개별성과 특수성에 대한 강조, 또 현실성 부재, 사료의 나열과 문헌고증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마침내 일제 식민시기 실증주의 사학과 결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들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현실적인 민족과 세계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사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들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새로 구상한 민족사는 민족에 초점을 둔 역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역사도 민족사로서 특수성을 인정하되, 보편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는 역사의 개별성을 중시하되, 보편성에 바탕을 뒀야 한다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개별성과 보편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개별성과 세계사 보편성을 결합했던 일제 역사가들의 방식을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자들

2000), 241-242쪽 각주 1, 2를 볼 것.

17) 예컨대 총독부의 조선사 편찬을 들 수 있다. 장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磁場」 『역사문제연구』 26 (2011), 45-83쪽.

18)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1934년 1월 28일, 29일자 사설,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자.

19)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315쪽.

20) 이인영, 「우리 民族史 의 性格」, 『學風』, 창간호 (을유문화사, 1948), 10-11쪽.

조차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민족사 연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이었다. 이기백의 주장을 살펴보자.

“실증사학에서는 특수성을 띤 구체적인 사실의 인식을 통하여 보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성에서 인식하려는 것은 한국사학의 일단의 진전이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보편성을 강조했을 경우, 그것은 일원적인 입장에 선 것이었다. 즉, 역사는 다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원적인 보편적 법칙에서 어긋나는 점들이 곧 특수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면 여기서 특수성이라고 인식된 사실들은 원칙이 없는 우연으로 처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사가 한국사로서의 면목을 드러내는 그 특수성이 우연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은 결코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결론이 되지 못한다. 특수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법칙성 없는 무질서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²¹⁾

민족역사의 개별성(특수성)을 통해서만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곧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핵심이다. 이와 반대로 실증주의적인 보편적 역사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의 중심이다. 따라서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가 “한국 역사학자들은 한국사의 발전 모델을 일본의 역사 발전에서 찾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다.²²⁾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역사 연구에서 민족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 연구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했으나 이후 개별성과 보편성이 상호 양립될 수 없는 모순점을 발견하고 역사 주체로서 민족을 인간으로 바꿔버린다. 다음의 글을 보자.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며, 한국사는 곧 한국인의 역사이다. 이것은 다룰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런데 종래 한국사의 서술은 종종 인간이 없는 역사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설서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누구 역사를 만들고 움직여 왔는가 하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건과 제도의 서술로써 만족하여 왔던 것이다. 한국의 근대 사학에서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민족을 중요시 한 것, 유물사관에서는 계급을 중요시 한 것 등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추상화된 민족이나 공식화 된 계급에 의한 서술은 한국사의 실제 움직임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한국사를 그 근본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에서 인간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붙드는데 그치

21) 이기백, 『한국사 신론』(일조각, 2005), 8-9쪽에서 인용.

22)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동아시아의 근대화, 식민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임지현, 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 105-135쪽.

고 말 염려가 있다.”²³⁾

이렇듯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특수성과 개별성의 특징인 민족을 슬그머니 빼고 보편적 의미의 인간으로 대치했다.

해방 직후 손진태와 이인영은 민족의 초계급적 동질성과 민족주의 보편적 발전을 역사서술의 목적으로 삼고 세계사 속에서 민족사를 자리매김 하는데 노력했다. 이어서 신민족주의 이름 아래 안재홍, 손진태, 이인영 등이 이를 역사서술에서 구체화했다.²⁴⁾ 그리하여 세계사적 보편성에서 민족사의 개별성을 추구한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역사관은 궁극적으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결과를 낳았다. 역사연구에서 민족의 개별성보다 보편성을 더 우위에 둔 것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달리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구한 식민주의 사학의 방향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은 일제 역사학자들로부터 배운 것만큼 그 수용과정에서 왜곡된 내용이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애초부터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²⁵⁾

그러므로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게 위해서는 먼저 민족주의 사학을 재평가해야 하며 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²⁶⁾ 이는 곧 식민주의 사학이 곧 실증주의 사학이며 근대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새로운 역사 구분을 의미한다.²⁷⁾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 일제 역사학자들을 통해 배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곧 식민사관이 되고 만다.²⁸⁾

김용섭은 한국사에 대한 이 두 시각들, 즉 실증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이 대체로 우리 역사와 민족을 과소평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반대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우월성을 자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실증주의 사학)는 일제 식민의 교육정책과 식민주의 사학자들의 한국사 연구가 남겨준 유산이며 후자(민족주의 사학)는 해방 후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민족정신을 양양시키려는 데

23) 이기백, 『한국사 신론』(일조각, 2005), 7-8쪽.

24) 원래 신민족주의 역사학은 안재홍이 1930년 『조선일보』에 「朝鮮上古史管見」을 연재하고 이어 잡지사인 新朝鮮社인의 『與猶堂全書』간행에서 정인보와 함께 교열을 맡아 연구하는 중 역사에 대한 관심과 신민족주의 기초 사상으로서 民世主義 사상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385쪽. 특히 일제 시기 민족과 국가란 주제를 제거하거나 혹은 왜곡했던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역사관을 주장하게 된 것은 기존의 실증주의 사학에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일조각, 1978), 118쪽. 김성준, 「鶴山 이인영의 역사의식」, 『국사관 논총』, 84 (국사편찬위원회, 1999), 135쪽.

25) 김용섭,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서술」, 『역사학보』, 31 (1966), 147쪽.

26) 강만길은 해방 직후 식민사관과 실증사학의 영향 때문에 민족 사학이 부각되지 못했다며 민족사학이 한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반식민사학’의 확립이 한국 근대사학의 발달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강만길, 「일제시대의 反植民史學論」, 『한국사학사의연구』(을류문화사, 1985), 232쪽. ; 「민족사학론의 반성-〈민족사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8집 (1975).

27) 이러한 도식은 이병도 제자 김철준은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이 더 근대적이라고 평가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실증주의 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은 역사의 과학성을 주장하면서도 비과학적인 학풍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철준, 「국사학의 성장과정과 그 방향」, 『한국의 민족문화 : 그 전통성과 시대성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266-273쪽.

28) 한우근은 식민주의 사학이 실증사학의 속류(俗類)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우근, 『민족사의 전망』(학술정보, 2001), 271-277쪽.

서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²⁹⁾ 이 가운데 식민사관을 배운 많은 지식층들은 있는 그대로 한국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일제 식민통치시기 일본인 역사가들은 한국사 연구를 주도하면서 한국사를 제국의 식민통치에 부합하도록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까지 한국 역사학계에서 이들의 연구 업적에 의지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 바로 이점이 오늘 날 한국 역사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주의 사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역사가들이 편취한 랑케의 역사사상은 우리 사학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편성과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 것이다.³⁰⁾

결국 한국 역사학계는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을 위해 민족역사와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일제가 왜곡한 랑케의『강국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역사학이 스스로 민족주의 정신과 문화전통 및 근대화를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 역시 새로운 ‘후식민사학’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³¹⁾ 결국 한국 역사학계는 식민주의 사학의 실체를 적절하지 못하고 민족역사의 문제로 분열과 논란만 가중시켜왔다.³²⁾

이와 같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식민주의 사학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 실증주의 사학이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을 수용하여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식민주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뤄져 왔다.³³⁾ 한국 역사학계가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한 비판은 무슨 까닭일까.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역사가들이 미처 연구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식민주의 사학의 성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도 본인은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 문제는 궁극적

29) 김용섭, 「일제 사학자들의 한국사관-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역사학회 편, 『한국사의 반성』(신구문화사, 1969), 29쪽.

30) 이 같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사학자들의 약점은 독일을 해석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개 일본어에 능하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 학자들의 번역본이나 해석, 혹은 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일본인 스승에게 배운 것이거나 혹은 일본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랑케의 역사 사상을 배운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의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학자 스스로 독일어 해독을 할 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랑케의 저작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많다고 생각한다.

31) 이종욱은 이병도 이기백으로 이어지는 한국 실증주의 사학 계보 원조는 일본의 식민주의 사학자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종욱은 이기백의 실증주의 사학에까지 이어지는 ‘후식민사학’의 해체를 전제로 하여 한국사를 재구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식민주의 사학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신라 내물왕 이전 역사에 답이 있다』(소나무, 2006) 참조.

32)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제 4장을 참조.

33) 김종준, 「한국사학계 반식민 역사학 정립 과정에서 실증사학의 위상 변화」, 『역사문제연구』31호(2014), 56쪽.

으로 서로 편 가르기가 반복되고 있다.³⁴⁾ 잘못 보면 역사에서 국가의 개입은 란케 실증주의 사학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역사의 중심으로 한 란케의 역사학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이나 사상의 개입이 배제된 순수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다.³⁵⁾ 객관성이 결여된 역사연구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연장선에서 볼 때 민족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란케 실증주의 사학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란케 실증주의 사학의 핵심은 말 그대로 실증을 추구하는 역사학, 다시 말해 역사의 과학화이다. ‘실증주의 사학’ 혹은 ‘실증사학’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이 둘 다 대체적으로 란케 실증주의 사학을 의미한다.³⁶⁾ 그렇다면 한국 역사가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일본 역사가들에게 배운 란케 실증주의 사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상백의 경우, 어떤 사실에 이르는 결론을 내릴 때 정밀한 관찰과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방도가 아니고, 과학적 방법도 아니라고 설명한다.³⁷⁾ 그가 말한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 즉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상백이 말하는 실증주의는 란케의 ‘역사 과학적 방법’인가 아니면 콩트의 ‘자연 과학적 방법’인가? 콩트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을 적용하여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며, 란케 실증주의 사학이 추구한 역사과학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상백은 역사과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³⁸⁾ 이에 비추어 보면 이상백은 란케 실증주의 사학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기백은 ‘실증사학(실증주의사학)’을 콩트 실증주의 사학과 구별하여 고증사학이란 말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실이 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³⁹⁾ 어찌했던 일제 역사가로부터 수입된 실증주의 사학은 란케 실증주의 사학이었다.⁴⁰⁾ 그러나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역사가들과 달리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이 주장한 실증주의 사학의 특성은 란케 실증주의 사학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란케로부터 사실과 실증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란케가 중

34) 이러한 실례로서 1974년 3월 국사교과서에 동학 난을 동학혁명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된 논란을 들 수 있다. 김중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175-176쪽.

35) 란케는 과학으로서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철학이나 사상의 개입이 없는 즉, 비당파성적으로 파악하여 순수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Ranke, “On the Character of Historical Science”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14쪽.

36) 그러나 이 둘의 용어는 성격이 다른 만큼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도 있지만 한국사학계에서는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홍승기, 위 책, 124쪽 이 두 용어의 혼용에 대한 지적은 김영한, 「실증주의 사관-콩트와 버클을 중심으로」,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논단 시리즈 1, 차하순편, (청람문화사, 2001), 60-61쪽을 보라.

37) 이상백, 『韓國文化史研究論巧』(을유문화사, 1947), 「序」9쪽.

38) 이상백, 위 책, 3쪽.

39) 예컨대 시바타 미치오(紫田三千雄)은 고증사학과 실증사학을 동일시하고 콩트의 실증주의와 구별했다. 그에 따르면 실증이란 의미는 비합리적인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헌비판과 고증을 바탕으로 한 란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의미한다. 紫田三千雄, 「日本における歐洲歴史学の受容」, 岩波講座, 『世界歴史』(第30)別巻 (東京: 岩波書店, 1971), 444쪽.

40) 김용섭, 「日本, 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 敘述」, 『역사학보』31 (1966), 140쪽.

시한 것은 ‘사실(事實)’인 반면에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實證)’을 더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방법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달리 말해 한국 실증주의 역사가들은 사료 비판이나 고증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Fact)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보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찾아내기보다 스스로 설정한 가설 혹은 역사사건 그 자체를 입증시키는 것에 더 몰두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역사연구 방식은 한국 사학계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¹⁾ 즉 이는 한국에서 역사연구가 비과학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병도의 실증주의 사학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하자면 그의 방식의 실증주의이다. 이러한 역사학의 흐름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반대하여 콩트의 과학적 실증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주의 사학으로 나아갔던 일제의 교토학파의 역사 철학자들이나 일제 실증주의 사학자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제 역사학자들의 경향이 이들에게서 배운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에게서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차이점은 각각 보편성과 개별성, 그리고 인류라는 객관성과 민족이라는 특수성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한국 역사학은 이런 시각의 간극 속에서 실증주의 사학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한국 역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보편성을 추구한 역사학은 역사연구의 일반성으로 수용되기엔 무리가 있다. 보편성에 기반을 둔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된 역사학은 철저하게 배척되어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연구가 가능하다. 결국 민족은 주관적인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역사연구의 주제이며 이 점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가치를 재평가되어야 한다. 설령 한국 역사학계가 그 어떤 현대의 역사학의 흐름을 과감하게 수용하더라도 랑케 실증주의 지향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민족역사의 서술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학계의 ‘통설通說’, 혹은 ‘정설定說’이란 말을 자주 즐겨 사용한다. 인문학 특히 역사학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학문의 독선이다. 과거 역사적 사실은 모두 역사가의 해석과 추정으로 설명되는 것이지 그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비정(比定)한다’라고 말하지 않은가? ‘통설, 혹은 ‘정설’ 등 같은 독선적인 결론은 또 다른 연구 성과나 해석을 가로막기 마련이며 결국 역사연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41) 홍승기, 『한국사학론』(일조각, 2001), 125-126쪽.

<랑케, 일제,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요점>

	랑케 실증주의 사학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 (식민사관)	한국 실증주의 사학
방법론	사료비판, 문헌고증	사료비판과 문헌고증	사료비판과 문헌고증
연구목표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	보편적 세계사 속의 일본민족의 위상	보편적 세계사 속의 한민족 위상
역사의 관점	개별성과 특수성	세계사적 보편성 (인류의 역사)	세계사적 보편성 (인간의 역사)
역사관	민족정신(민족주의)	인류애(보편적 세계주의)	인류애(보편적 세계주의)
세계관	개별민족의유기적 관계	인류의 유기적 관계	인류의 유기적 관계
역사연구 방향	개별성에서 보편성 이해	보편성에서 개별성 이해	보편성에서 개별성 이해
역사의 보편성	민족국가들의 균형	강대국의 지배 경향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배 경향 (세계사적 지배경향)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자.
- 『조선일보』, 1934년 1월 28일; 29일자 사설.
- 강만길, 「민족사학론의 반성-〈민족사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8집, 1975.
- 강만길, 「일제시대의 反植民史學論」, 『한국사학사의연구』, 을류문화사, 1985.
- 강상중 저, 이경덕, 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고야마 사토시(小山哲), 도면회, 윤해동 역음 「‘세계사’의 일본적 전유-랑케의 중심으로」,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 김기봉,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호서사학』 39집, 2004.
- 김성준, 「鶴山 이인영의 역사의식」, 『국사관 논총』 84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쪽.
- 김영한, 「실증주의 사관-콩트와 버클을 중심으로」,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문화사, 2001.
- 김용섭,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서술」, 『역사학보』, 31집, 1966.
- 김용섭, 「일제 사학자들의 한국사관-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한국사의 반성』, 신구문화사, 1969.
- 김종준, 「한국사학계 반식민 역사학 정립 과정에서 실증사학의 위상 변화」, 『역사문제연구』 31호, 2014.
-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2013.
- 김철준, 「국사학의 성장과정과 그 방향」, 『한국의 민족문화 : 그 전통성과 시대성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 나가하라 게이 지음,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 랑케,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신서원, 2014.
- 미야지마 히로시, 임지현·이성시 역음 「동아시아의 근대화, 식민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2005.
-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 이기백, 『韓國史學의 方向』, 일조각, 1997.
- 이상백, 『韓國文化史研究論攷』, 을유문화사, 1947.
- 이인영, 「우리 民族史의 性格」, 『學風』, 창간호, 을유문화사, 1948.
-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신라 내물왕 이전 역사에 답이 있다』, 소나무, 2006.
- 장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磁場」, 『역사문제연구』 26집, 2011.
-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 한우근, 『민족사의 전망』, 학술정보, 2001.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메타역사 :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제1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홍승기, 『한국사학론』, 일조각, 2001.

Leonard Krieger, “Elements of Early Historicism : Experience, Theory and History in Ranke”, *History and Theory*, Vol. 14, No. 4 (Dec., 1975).

Leopold von Ranke, *Die großen Mächete. Pölitisches Gespräch mit einem Nachwort von Ulrich Muhlack* (Frnkfurt am Mein und Leipzig, 1995).

Ranke, “On the Character of Historical Science”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14쪽.

Ranke, “The Pitfalls of Philosophy of History”,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New York : Routledge, 2011), 17-19쪽.

Ranke, “Über die Idee der Universalhistory”, in Herausgeben von Ludwig Dehio und Walther Kienast, *Historische Zeitschrift* Band 178, (München: Oldenbourg, 1954).

高山岩南, 『歴史の哲學』, (東京 : こふし書房, 2001).

高坂正顯, 『歴史の意味とその方』, (東京 : こふし書房, 2002).

高坂正顯, 『歴史的世界』, 京都哲學叢書 第25卷, (東京 : 燈影舎, 2002).

高坂正顯, 高山岩南, 西谷啓治, 鈴木成高, 『世界史的立場と日本』, (東京 : 中央公論社, 1943).

岩波講座, 『世界歴史』, 第30 別卷 (東京 : 岩波書店, 1971).

紫田三千雄, 「日本における欧州歴史学の受容」

坂口昂, 『獨逸史學史』 (東京 : 岩波書店, 1932).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 그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임찬경(국학연구소)

1.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은 ‘민족주의사학’ 아닌 ‘독립운동사학’
2.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 노력과 그 좌절
3.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1.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은 ‘민족주의사학’ 아닌 ‘독립운동사학’

1) 기존 한국사학사의 민족주의사학이란 용어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검토

2014년 6월부터 교육부의 예산지원으로 연구하여 제출한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에서,¹⁾ 필자는 ‘독립운동역사가’와 ‘독립운동사학’이란 두 가지의 새로운 용어를 창안(創案)하여 사용하였다.

‘독립운동역사가’는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연구에 의한 일정한 역사저술을 남긴 독립운동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창안되었다. 독립운동과 역사연구라는 두 가지의 시대적 역할을 담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성격을 특히 부각시키는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용어로서 새로 창안해낸 것이다. 즉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학을 기존의 한국사학사(韓國史學史)에서처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민족주의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독립운동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역사가의 역사연구들을 특별히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의도 때문이다.

①소위 민족주의사학의 성립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AKS-2013-KSS-1230004)의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이다.

1) 이 연구는 2017년 9월 25일 최종결과물을 제출하면서 종료되었다.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연구를 진행하여 일정한 저술을 남긴 대표적인 독립운동역사가로서 이상룡, 박은식, 유인식, 김교헌, 이시영, 계봉우, 신채호, 김정규, 김승학, 이원태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한국역사학계에는 이들 독립운동역사가들을 대체로 ‘민족주의사학’을 추구한 ‘민족주의사학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역사가의 독특한 면모(面貌)를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국역사학계의 이러한 분류 경향을 반드시 재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만열(李萬烈)은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1981)에서 19세기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의 민족주의사학 태동(胎動)과 성립 및 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민족주의사학의 태동 : 국가 자주(自主)의 시련으로 이 시기의 역사학은 민족적 자각을 위한 방편으로 환기 고조되었고 애국계몽사상의 중요한 소재와 내용이 되었다. 애국계몽이 중요한 임무였던 만큼 자주성 교양에 역점을 두고 교과서 등을 통해 민족사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랬던 만큼 일제 통감부(統監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한편 뜻있는 선각자들은 민족 전통의 계승을 위해 민족적인 고전(古典) 간행에 열을 올렸다.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발족(發足)되는 것은 이때다.

민족주의사학의 성립 :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 일제는 어용학자들을 동원, 그들의 조선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소위 식민주의사관을 안출(案出)하기에 광분한다. 이에 대하여 박은식 · 신채호 · 남궁억 등은 한국사의 연구와 보급이 국권회복 · 독립투쟁의 중요 방편임을 인식하고 민족사 연구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역사연구 방법을 답습한 것이 아니고, 식민주의사학에 대항할 역사의식과 방법론을 확대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 결과 한국의 소위 근대역사학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민족주의사학의 분화 : 1920년대 말기부터 민족사학은 사관과 방법론을 달리하는 여러 유파가 형성된다. 흔히 민족주의사학 · 실증주의사학 · 유물사관(사회경제사학으로도 불리어진다)으로 3대별(大別)된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의 소위 근대사학에 자극받았고 근대교육에 접했던 소장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학회를 조직하여 학술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단학회(震檀學會)의 성립과 활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1940년대에 이르면 민족주의사학은 표면상으로는 거의 침묵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²⁾

민족주의사학의 태동, 성립, 분화에 대한 위의 인용문은 한국사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이만열이 1976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보다 앞서 김용섭(金容燮)도 1971년에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었다. 김용섭은 1971년 및 1972년에 발표된 글에서 박은식과 신채호의 근대역사학을 먼저 서술한 뒤, 이를 계승한 1930년대 및 1940년대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서술하고, 이어서 일본 역사학의 ‘관학

2) 李萬烈,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文學과知性社, 1981, 116~117쪽.

(官學) 아카데미즘'의 학풍과 방법론을 그대로 도입하여 성립된 실증주의 역사학을 서술하고 있다.³⁾ 또한 김용섭은 민족주의 역사학 및 실증주의 역사학과 같은 시기에 맑스와 엥겔스의 사적유물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성립된 사회경제사학도 언급하고 있다.⁴⁾

물론 일제의 침략으로 얼룩진 근대 역사학의 발전과정을 민족주의사학, 실증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근대사학을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개괄(概括)함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검토한 독립운동 역사가의 역사연구를 단순히 민족주의사학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민족주의사학이란 명칭 자체부터 한 번 깊이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독립운동역사가들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사학의 상관성

원칙적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민족주의란 침략적 제국주의, 외세와 영합하여 식민지의 지배계급으로 다시 살아남은 매국적(賣國的) 봉건 잔재세력, 침략적 제국주의와 이에 영합한 매국적 봉건 세력이 식민지에 이식(移植)하여 강화하려는 식민주의 등에 맞서는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다. 신채호의 논설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1909) 등을 살펴보면, 신채호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 또한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주의 차원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 한국사학계에서 민족주의사학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과연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시대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이해하고 선택했던 '저항적 민족주의'의 이러한 속성을 정확히 반영한 용어인가? 이러한 의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960년 4월혁명의 정신적 영향력 아래에서 1960년대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소위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후기 및 1970년대 초기에 한국근대사학의 흐름을 정리하고,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속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에 민족사학은 민족주의사학과 동의어(同義語)로 불려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기백(李基白)은 『사상계』 1963년 2월호에 「민족사학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뒤에 이기백이 자신의 저서인 『민족과 역사』(1974)에 제목을 「민족주의사학의 문제」로 바꾸어 실는 정도였다. 대체로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민족사학이라고 부르던 것을 1970년대 이후 민족주의사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⁵⁾

서중석(徐仲錫)은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의 차이점, 민족주의사학의 개념 및 성격 그리고 식민사학과의 관계, 민족주의사학의 범위 등을 검토한 그의 논문에서 민족주

3) 위에 소개한 김용섭의 논의는 『文學과 知性』제2권제2호(통권4호, 1971)과 『文學과 知性』제3권제3호(통권9호, 1972)에 수록되어 있다.

4) 사회경제사학에 대해서는 김용섭이 1970년대에 강의 등에서 언급했지만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여 그의 회고록인 『역사학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지식산업사, 2011)에 실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참고하였다.

5) 서중석, 「민족주의사학의 논쟁」 『진단학보』80, 1995, 208쪽.

의사학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을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 예컨대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자는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도 있다. 민족주의가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두리뭉실하게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족운동이라는 말은 민족주의운동이라는 말보다는 더 광의(廣義)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자에 따라서 일제시기에 민족주의와 민족개량주의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비록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아니고 일제의 통치 내(內)라고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한 단위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면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비슷하게 민족사학은 민족주의사학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조동걸(趙東杰)은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시도하였다.⁶⁾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었듯, 조동걸은 그의 논문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에서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을 구별해서 볼 것을 제안하고, 그 이유로 1930년대의 맑스주의사학(사회경제사학)이 민족사학이기는 하지만 민족주의사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동걸은 민족사학이란 말은 식민사학에 대칭하는 용어이고,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사학의 분류상의 호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족사학에 맑스주의사학과 더불어 실증사학을 포함시켰던 것이다.⁷⁾

그러나 민족사학이란 매우 포괄적인 조동걸의 개념 설정에 대해, 서중석은 “친일행위를 한 자들의 사학도 민족사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⁸⁾ 사실 이러한 비판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식민사학에 대칭하는 용어로서의 민족사학이란 조동걸의 개념 설정에 의하면, 민족사학이라는 큰 범위 안에 일제의 식민사학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한국 사학들이 포괄(包括)되는 것이다. 당연히 실증주의사학 혹은 문화사학 등의 분야에서 친일을 한 한국 국적의 학자도 모두 민족사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동걸의 경우, 민족사학이란 식민사학에 정확하게 대칭되는 개념이기보다는 단순히 한국사학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조동걸의 『현대한국사학사(現代韓國史學史)』(1998)에서는 ‘한국사학(민족사학)’이라는 큰 범주에 한국사학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민족사학은 한국사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조동걸은 위의 저서에 <한국사학의 분류도>란 도표를 제시하였으며,⁹⁾ 여기에서 한국사학(민족사학)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6) 서중석, 「민족주의사학의 논쟁」『진단학보』80, 1995, 209쪽.

7) 조동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368쪽 및 414쪽.

8) 서중석, 「민족주의사학의 논쟁」『진단학보』80, 1995, 209~210쪽.

9)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518쪽 도표 참조.

우선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것은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이 다른 것과 같다. 민족사학은 식민사학의 대칭이고, 민족주의사학은 보편주의사학의 대칭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은 유물론사학과 절충식 경제사학을 총괄한 의미의 호칭으로 이해하였다.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사학은 민족해방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민족주의사학은 민족통일을 지향한 것이어야 하듯이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표방할 점이 다른 것도 유의하여 이해해야 한다.¹⁰⁾

조동걸은 위에 인용한 논고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도표]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위의 [도표]에서 왼쪽 즉 관념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은 역사학 방법론에 의한 분류를 나타내는 것이며 오른쪽 즉 민족주의사학, 보편주의사학, 고증학은 식민지 현실인식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조동걸은 “종래에 학계에서는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으로 분류해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국사학을 이해하는데 고도(高度)의 사고가 없으면 논리를 세우기가 힘들었다.”며, 여러 검토 끝에 위의 [도표]와 같은 분류가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¹¹⁾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관(史觀)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자각(自覺) 즉 사회와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시간적 선후(先後) 관계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¹²⁾ 조동걸은 근대사학이 사실의 실증(實證)과 역사적 논리 즉 인과관계(因果關係)의 규명에 의한 역사발전의 논리를 탐색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탐색 과정에 역사를 변천시키는 힘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듯하다. 이런 인식에 의해, 위의 [도표]에서 언급되었듯, 조동걸은 역사변천의 해석에서 정신적 요소를 중시하는 관념사학을 설정한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또한 조동걸은 다시 관념사학을 유심론사학(唯心論史學)과 문화사학으로 나누고 있다. 신채호나 박은식의 경우처럼 혼(魂), 민기(民氣), 낭가사상(郞家思想) 등 정신적 힘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심론사학이라고 해석했고 황의돈(黃義敦)이나 안학(安廓) 등처럼 인간의 문화적 기능에 의하여 역사가 변천한다고 본 방법론은 문화사학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2) ‘독립운동사학’을 설정하고 그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위에 소개한 이만열과 조동걸 등의 근대사학 분류를 적용할 경우,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보여준 역사인식의 특성을 제대로 밝히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만열과 조동걸 등의 분류에 따를 경우, 독립운동역사가들은 소위 기존의 민족

10)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45쪽.

11)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518~519쪽.

12) 車河淳, 『史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2, 9쪽.

주의사학의 범주 안에서 기존의 여러 역사학자들이 이미 분석한 것과 같은 결과들에서 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조동걸은 한국사학(민족사학)을 역사학 방법론에 따라 관념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으로 나누고 신채호와 박은식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관념사학 아래의 분화(分化)된 개념인 유심론사학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유심론사학, 문화사학은 사회경제사학 아래의 분화된 개념인 절충식 경제사학과 함께 식민지 현실인식이란 기준에 의해 민족주의사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로써 그 분석 대상들을 서로 연관시켜 인식하면서, 오로지 독립운동으로서의 역사를 연구했던 독립운동역사가들의 독특한 면모를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는가?

일찍이 강만길은 위에 언급한 이러한 분류와 민족주의사학(당시에는 민족사학이라고 혼용하기도 한)이란 용어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 지도이론의 한 갈래로서 이루어진 사론(史論)을 <민족사학>이라 이름지은 것은 다소 막연히 민족주의적 입장에 선 국사학이란 의미에서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이란 말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여 왔다. 따라서 민족주의도 여러 가지 단계(段階)와 유형(類型)이 있으며 같은 시대의 민족주의도 그 대내적 기능과 대외적 기능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민족사학>이란 용어 자체가 그다지 적당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한층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¹³⁾

위와 같은 여러 논의를 검토한 결과, 필자는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을 세워, 본문에서의 자료수집과 분석의 잣대로 삼았다. 즉 필자는 독립운동역사가를 ‘민족주의사학’이란 개념의 틀로 분석하지 않고, ‘독립운동사학’이란 특성(特性)화시킨(혹은 분화된 혹은 진화된) 개념의 틀로서 독립운동역사가만을 뚜렷이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의 서술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은 독립운동가와 역사학을 융합시킨 용어이다. 즉 독립운동가들이 그 연구 주체가 되어 형성한 역사학을 범주화한 것이 ‘독립운동사학’이다. 부연하면, ‘독립운동사학’이란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용어로서 새로 창안해낸 것이다. 즉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학을 기존의 한국사학사(韓國史學史)에서처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민족주의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독립운동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역사가의 역사연구들을 특별히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의도 때문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자칫 민족주의사학에서 분화된 개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근대사학에서는 ‘독립운동사학’에서 뒤의 ‘민족주의사

13) 강만길, 「〈民族史學〉論의 反省」『창작과비평』11(1), 1976, 320쪽.

학'(1945년 8월의 해방 이후에도 역시 민족의 과제로 남은 자주, 식민세력 청산, 민주와 통일의 과제 실현을 위한 역사학으로 이런 용어가 굳이 필요하다면)이 잉태되고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역사가들이 형성한 사학은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로 '독립운동사학'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의 설정은 본 연구를 통해 한층 진전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재조명(再照明)은 물론 그 계승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가 본고에서 검토한 독립운동역사가들의 독립운동 및 역사연구에의 열정과 피땀과 방법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서는 물론 그 역사정신의 계승에서 그간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계승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다소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차원이기도 한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의 설정과 함께, 그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 노력과 그 좌절

1)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 노력

사대적이고 봉건적인 조선이 해체되며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근대적 방법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고 또 복원하려는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본 당시 우리 역사의 현실은 실로 참담한 것이었다. 신채호가 “조선에 조선사라 할 조선사가 있었던가 하면 수궁하기 어렵다.”고 하던가, “내가 보건데,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구(外寇)의 병화(兵火)에 서보다 곧 조선사를 저작(著作)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탕잔(蕩殘)되었다 하노라.”라고 하던가, “예전 조선의 역사가들은 …도깨비도 뜨지 못한다는 땅 뜨는 재주를 부려 졸본(卒本)을 떠다가 성천(成川) 혹은 영변(寧邊)에 놓으며, 안시성(安市城)을 떠다가 용강(龍崗) 혹은 안주(安州)에 놓으며”라고 비판했듯,¹⁴⁾ 기존 조선 역사의 서술이나 연구방법은 물론 그 서술 주체 등 모두가 전반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했다.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며 사대사관(事大史觀)에 의한 한국민족사의

14) 申采浩, 「二. 史의 三大元素와 朝鮮舊史의 缺點」 『朝鮮日報』(1931. 6. 11). 위의 인용문에서 “도깨비도 뜨지 못한다는 땅 뜨는 재주를 부려 졸본을 떠다가 성천 혹은 영변에 놓으며”라는 구절은 조선시대의 사대적 역사가들이 고구려의 첫 도읍인 졸본을 한반도 안의 성천이나 영변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첫 도읍인 졸본이 현재의 요하 서쪽 의무려산 남쪽 일대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고려시대의 고구려 첫 도읍에 대한 통설(通說)은 졸본이 현재의 요하 서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에 의해 고구려의 첫 도읍이 현재의 중국 요령성 환인 일대라는 소위 통설(通說)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임찬경,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검토」 『선도문화』 20, 2016, 참조).

왜곡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신채호가 그의 글에서 “조선에 지금까지 조선사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조선적 조선을 적은 조선사거나, 위인적(偉人的) 조선을 지은 조선사이거나, 다만 조선을 주체로 하는 충실히 적은 조선사”라 할 수 있는 ‘참 조선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⁵⁾

독립운동가들이 볼 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위기의 시기에 우리민족을 각성시키고 단합시킬 우리의 민족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위한 차원의 역사서술이 절실하였고, 그 역사서술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바로 독립운동 역사가였던 것이다.

①사대사관 및 식민사관과의 역사전쟁

그러나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한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을 때, 그러한 시도들은 출발부터 크나큰 장벽에 부딪혔다. 조선을 침략하여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는 처음부터 조선의 주체적인 민족사 서술, 독립운동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인의 역사서술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막아내려 했다. 독립운동역사가들이 직면한 당시의 암담한 상황은 박은식의 망명과 관련된 다음의 서술에 잘 나타나 있다.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또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혼(國魂)이 소멸되지 않으면 부활(復活)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 말과 글자 하나의 자유가 없으니 오로지 해외로 나가서 4천년 문헌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국혼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탄하면서 망명을 계획하였다.¹⁶⁾

일제의 조선 강점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에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쓸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으로 전락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시도하는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과 함께 역사서술에 나섰다. 이들 독립운동역사가들에 의해 ‘독립운동사학’의 역사서술이 시작된 것이다.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독립운동과 역사서술을 위해 이 땅을 떠나야했던 이러한 시대 상황은 우리 역사학의 근대사학으로의 순조로운 발전적 전환을 가로막았다. 이때 조선을 침략하여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는 “조선에 참다운 조선사가 없는” 그런 시대상황을 오히려 악용하였다. 즉 일제는 조선의 주체적 민족사 서술을 강력히 탄압하는 한편, 더 나아가 조선고대사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일제가 조선민족을 문화적으

15) 신채호, 「조선사 정리에 대한 사의」『룡과 룡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216~223쪽.

16) 李萬烈 編, 「白巖 朴殷植 年보」『朴殷植』, 한길사, 1980, 359쪽.

로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일제의 조선사 왜곡이 조선 역사를 말살(抹殺)하는 수준이었음을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인 요시다 도고(吉田東梧)는 문학박사로서 조선 역사를 없앨 것을 소리높이 주장하였다. 조선 역사가 존재하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 남아 있게 되어, “조선 역사를 없애 그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않다”라고 말하였다.¹⁷⁾

그러므로 일제는 식민사관(植民史觀)이란 논리로 무장했고, 그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조선사의 논리들을 만들어 전파하는 시도에 착수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조선이란 봉건왕조에서 오랫동안 사대사관에 의해 왜곡되어온 기존의 역사 서술은 물론 일제가 새로이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해대는 역사 서술에 동시에 맞서면서, 조선의 민중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으로 내세울 수 있는 민족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작업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②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청산하려 했던 역사적 적폐의 본질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청산하려 했던 역사적 적폐의 하나는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린 사대사관이었다. 사대사관의 형성은 고려 중기 이후와 조선시대 지배층이 지닌 문화 의식 및 사대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사대사관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가능했다.

해동(海東)은 그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이라고 일컬은 이가 셋이 있었으니, 단군·기자·위만이 바로 그들이다. 박씨·석씨·김씨가 서로 이어 신라라고 일컬었으며, 온조는 앞서 백제라고 일컬고, 진휼(甄萱)은 뒤에 후백제라고 일컬었다. 또 고주몽은 고구려라고 일컬고, 궁예는 후고구려라고 일컬었으며, 왕씨는 궁예를 대신하여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 지역을 몰래 차지하여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명호를 세우고 서로를 침탈하였으니 비록 호칭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무슨 취할 게 있겠는가? 단 기자만은 주무왕(周武王)의 명령을 받아 조선후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명의 태조를 가리킴)가,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멀고 오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체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고 명하였는데, 아마 주무왕(周武王)이 기자(箕子)에게 명하던 것으로 전하에게 명한 것이리니, 이름이 이미 바르고 말이 이미 순조롭게 된 것이다.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洪範)을 설명하고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條)의 교(敎)를 지어서 국중에 실시하니,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천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¹⁸⁾

17) 朴殷植, 『韓國痛史』, 1915.

조선의 개국과 통치기반 확립을 주도했던 정도전(鄭道傳, 1342~1398년)이 작성한 위의 「조선경국전」은 그 뒤 조선왕조를 움직이는 통치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 통치이데올로기의 핵심에는 기자가 있었다. 즉 기자라는 국호를 가진 조선은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도전은 기자가 주무왕(周武王)의 책봉을 받아 고조선의 임금이 되었듯, 이성계가 명(明)의 책봉을 받아 조선의 왕이 된 것을 연결시켜, 조선 건국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드러내려 하였다.¹⁹⁾ 물론 그 결과는 사대(事大), 소중화(小中華), 화이관(華夷觀)의 함정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 초기부터 사대적 역사인식과 서술이 강화되면서 역사지리에서 나타난 현상은 단군, 기자, 위만, 한사군의 낙랑 등이 모두 현재의 대동강 강변 현재의 북한 평양 일대로 설정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동국여지승람』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들 수 있다.

[평양부] 본래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 당요(唐堯) 무진년(戊辰年)에 신인(神人)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단군이라 일컬었으니, 이것이 전조선이요, 주무왕(周武王)이 상(商)을 이기고 기자를 여기에 봉하니, 이것이 후조선이요, 전하여 41대 손인 준(準)에 이르러 연인(燕人) 위만이 그 땅을 빼앗아 왕험성[험(險)은 검(儉)이라고도 쓰니, 바로 평양이다]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조선이다. 그 손자 우거가 한(漢)의 조명(詔命)을 받들려 하지 않으니 무제가 원봉 2년에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여 사군(四郡)으로 만들고 왕험성으로 낙랑군을 삼았다. 고구려 장수왕 15년(427)에 국내성으로부터 옮겨와 도읍하였다.²⁰⁾

그 이후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면, 기자가 도읍하여 문명을 교화한 평양에서 시작하여, 우리민족의 전반 역사의 강역을 한반도에 한정하는 유형의 역사서술이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약용인데, 그의 『아방강역고』는 우리민족 고대사의 영역이 원래부터 대체로 한반도 지역 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¹⁾

이 무렵의 대표적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는 『동사강목』과 『아방강역고』는 조선시대 중후기의 학자들이 역사를 구성하는 일정한 틀로 작용한 소위 ‘정통론’에 의해 우리 역사를 서술한 것들이다. 이러한 ‘정통론’에서의 조선역사는 반드시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어, 기자를 중심에 세워, 그 정통을 계승하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적이다. 정약용 『아방강역고』의 첫 부분인 「조선고(朝鮮考)」도 “조선이란 이름은 평양에서 생겼는데, 실은 기자가 도읍한 본지(本地)를 말한다.”며 기자로부터 우리

18) 『三峰集』第13卷「朝鮮經國典」上 國號.

19) 유성선, 「栗谷의 華夷論 研究」『인문과학연구』34, 2012, 380쪽.

20) 『新增東國輿地勝覽』第51卷 平安道 平壤府.

21) 趙誠乙,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奎章閣』15, 1992, 91~92쪽.

역사 서술을 시작한다.²²⁾ 『동사강목』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을 정통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동사강목』 본문의 역사서술은 기자 원년(元年)으로부터 시작한다.²³⁾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그들의 역사편찬 논리인 정통론은 실은 중화(中華) 혹은 소중화(小中華) 혹은 사대(事大)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 입장에 선 것이란 점이다. 정통론이란 실제로 ‘중화계승의식’의 역사학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²⁴⁾ 기자가 현재의 평양 일대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문명국으로 교화시키고, 뒤에 한(漢)의 무제가 그 평양에 낙랑군을 세웠으며, 한사군 중의 현토군은 압록강 중류 일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으니, 고구려의 첫 도읍은 압록강 중류 이북 일대에 비정된다는 논리가 조선시대에 나타나서 지배적 인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대사관은 한반도를 침략하여 영구히 지배하려는 일제에 의해 악용되었다. 일제는 사대사관을 변용하여,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사관의 큰 틀은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다르지 않다.²⁵⁾

예를 들면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는 1892년에 출간한 『조선사』에서 “옛날 은(殷)이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9백년이 지난 준왕(準王) 때 연(燕)의 위만에게 쫓겨나고, 위씨(衛氏)가 대신 통치한 지 대략 80년 만에 한(漢)의 무제에게 멸망되었다. 무제가 그 땅을 나누어 사군(四郡)으로 삼고, 소제(昭帝) 때 이를 합하여 이부(二府)로 하였다.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 동안 모두 중국인이 통치한 셈이 된다.”라고 조선고대사를 요약하고 있다.²⁶⁾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틀은 같지만 대외종속성을 더욱 강조한 이런 관점 즉 식민사관으로 한국 민족사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맞서,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려했던 독립운동역사가들은 고대사 연구를 통해 우리민족사의 첫 출발점에 우선 단군(檀君 혹은 壇君)을 세우려 했다. 단군에서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았고,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로서 우리민족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에 나설 동력을 찾으려 했다. 당연히 독립운동역사가들은 고대의 한반도에 기자(箕子)가 와서 조선을 다스렸다는 사대적(事大的) 역사 인식을 극복하려 했다.

서기전108년 무렵 한(漢)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일대에 설치했다는 소위 한사군(漢四郡)의 논리 역시 독립운동역사가의 고대사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독립운동역사가들은 조선시대의 사대적인 역사가들이 기자나 한사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м으로서 우리민족의 역사적 강역을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만주대륙(滿洲大陸)을 강역으로 하는

22) 정약용 지음/이민수 옮김, 『朝鮮考』『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21쪽.

23) 『東史綱目』第1 上 己卯年 朝鮮 箕子 元年.

24) 許太裕, 「17세기 말~18세기 초 中華繼承意識의 형성과 正統論의 강화」『震檀學報』103, 2007, 75쪽.

25) 필자는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다. 일제가 강점 이후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형성하여 조선 역사왜곡에 바로 작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사대사관을 식민사관으로 변용시켰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6)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著/편무진·김현욱·이태훈 역, 『조선사』, 인문사, 2013, 51~52쪽.

우리민족 고대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독립운동역사가들은 단군에서 부여(扶餘)-고구려-발해를 거쳐 여진(女眞)과 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대륙국가를 우리역사의 본모습으로 설정하려 애썼다. 만주대륙을 우리민족 본래의 역사 강역으로 보는 이러한 역사 인식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대륙을 터전으로 독립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었고, 독립운동으로 쟁취할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구상에서도 만주대륙을 미래의 우리 강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2)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이 좌절된 원인

해방이 되었지만, 1945년 이후의 한국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1949년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로 인하여 친일협력자 처벌의 초보적인 기회조차 무산되었다. 1964년의 5·16쿠데타, 1979~1981년의 신군부 권력 장악 등의 시기에도 과거청산의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이 좌절된 원인도 이러한 한국의 역사상황에 의한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를 대신하여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하게 된 미군정 아래에서 냉전(冷戰)의 대립구조에 편승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된 집단은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즉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의 남부에 온존시켜야만 하는 세력이 집권세력이 된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전반에서 과거청산의 계기가 총체적으로 무산된 것이었다.

역사적 적폐 청산이 이렇게 좌절되는 사회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됨에 따라,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적폐는 소위 ‘통설(通說)’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 역사학계를 장악했으며, 그 적폐를 답습하는 소위 일부 역사학자들은 권력이 되어 역사 관련 학계와 기관을 장악하였고, 오히려 사회 전반을 적폐의 모순으로 점점 오염시켜 왔다. 지금 한국사회의 역사학계는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 등 그 어느 것도 청산하지 못한 채, 그 적폐들을 심화시켜 기형적인 모습으로 우리 역사의 정립(正立)을 오히려 방해는 주범이 되어 있다.

3.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1)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역사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에 대한 계승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립운동역사가

의 연구성과 중 고대사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비판적 계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가 왜 아직도 독립운동역사가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비판적 계승의 과제를 안고 있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만열은 독립운동역사가 중의 대표적 인물인 단재 신채호의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신채호)의 이름은 국사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홍이섭(洪以燮) 등 몇몇 민족주의사학 계열의 학풍을 계승한 학자들이 대중 잡지와 신문의 한 귀퉁이에 그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였다. 1936년 그가 사망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광(朝光)』 같은 잡지에서 그에 관한 특집호를 낼 정도로 민족운동가로, 사학자로 알려졌던 그가 해방·독립된 조국에서 거의 백안시(白眼視)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냉전 체제의 고착으로 그 여파(餘波)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1950년대 전후의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禁忌視)했던 한국의 전반적 분위기에 뿌리를 박고 있던 당시 국사학계의 풍토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²⁷⁾

물론 위의 인용문에서 “그것은, 냉전 체제의 고착으로 그 여파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1950년대 전후의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했던 한국의 전반적 분위기에 뿌리를 박고 있던 당시 국사학계의 풍토”라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민족주의’를 금기시했다기보다는 “과거 일제강점기나 혹은 일제에 의해 온존된 그 이전 시기의 어떠한 적폐(積弊)에 대해 따지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일제강점기 혹은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의 적폐에 기반하여 한국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지배세력에게 역사적 적폐는 물론 그 어떤 적폐와 관련된 사소한 부분이라도 청산하자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시대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은 변화하였다. 특히 2017년에 성립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에 온존해온 각종 적폐 청산에 적극적이다. 누적된 적폐에 의한 총체적 모순의 노출로 인한 ‘시민혁명’ 형식인 촛불집회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명분과 함께 일정한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로 적폐 청산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고 또 실행되어지는 이 시점에, 한국의 역사학계도 역시 적폐 청산의 영역에 들어서야 한다. 물론 역사학계 자체가 스스로 적폐 청산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 스스로가 적폐일 수 있는 역사학계가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우리 역사의 정립(正立)을 희망해왔던 우리사회의 다수 구성원은 지난 시기에 이미 역사 적폐를 위해 노력했던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 인식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또한

27) 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的 研究』, 문학과지성사, 1990, 12~13쪽.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한 일제 유사집단에 의해 중단되거나 좌절되었던 역사적 적폐 청산 작업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독립운동가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실천 방식이다.

2)문재인 정부 이후 통일시대를 위한 역사학계 적폐 청산 방법

역사학계 내부의 연구와 토론만으로는 역사학계의 오래고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한국 역사학계의 적폐 청산은, 학계 이외 우리사회 구성원 다수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도록 한국 역사학계의 적폐는 복잡하고 심각한 지경이다.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다음과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역사학계 적폐 청산에 관한 동의 및 참여 확산
- ②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남북 공동으로 구성)
- ③역사학계 적폐로서의 기존 역사 관련 기구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청산 (끝)

<참고문헌>

- 『東史綱目』第1 上 己卯年 朝鮮 箕子 元年.
- 『三峰集』第13卷 「朝鮮經國典」上 國號.
- 『新增東國輿地勝覽』第51卷 平安道 平壤府.
- 강만길, 「〈民族史學〉論의 反省」, 『창작과비평』 11(1), 1976.
- 김용섭, 『역사학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 김용섭, 『文學과 知性』 통권4호, 1971.
- 김용섭, 『文學과 知性』 통권9호, 1972.
- 朴殷植, 『韓國痛史』, 1915.
- 서중석, 「민족주의사학의 논쟁」, 『진단학보』 제80집, 1995.
- 申采浩, 「二. 史의 三大元素와 朝鮮舊史의 缺點」, 『朝鮮日報』, 1931. 6. 11.
- 신채호, 「조선사 정리에 대한 사의」, 『룡과 룡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 유성선, 「栗谷의 華夷論 研究」, 『인문과학연구』 제34집, 2012.
- 李萬烈 編, 「白巖 朴殷植 연보」, 『朴殷植』, 한길사, 1980.
- 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的 研究』, 문학과지성사, 1990.
- 李萬烈,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文學과知性社, 1981.
- 임찬경,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검토」, 『선도문화』 제20집, 2016.
- 정약용, 이민수 옮김, 「朝鮮考」『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 조동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 趙誠乙,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奎章閣』 제15집, 1992.
- 車河淳, 『史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2.
- 하야시 다이스케, 편무진·김현욱·이태훈 역, 『조선사』, 인문사, 2013.
- 許太榕, 「17세기 말~18세기 초 中華繼承意識의 형성과 正統論의 강화」, 『震檀學報』 제103집, 2007.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

-이병도 사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1. 들어가는 글
2.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 사업
3. 해방 후 식민사학의 극복과 한계
4. 이병도 사학의 위상과 영향
5. 이병도 역사관의 비판
6.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1910년 국권 피탈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으로 이행 발전하여 왔다. 박은식과 신채호 같은 민족사학자가 그 중심에 섰으며, 그들은 종래 우리 역사학의 전통 위에서 그것을 비판 계승하고 서구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체계화를 위한 단초를 열었다.

먼저 전통적인 역사학의 입장을 계승한 역사가들은 역사서술의 기술면에서는 다소 서툴렀지만, 역사의 밑바닥에 강렬한 민족정신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러한 정신 위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이 그러하였다.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반대편에는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1910년 한국을 병탄한 이후 민족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역사에 주목하였다. 일제는 민족동화정책의 전제로서 추진된 수사(修史)사업을 통해 한국병탄의 정당성과 식민통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역사왜곡을 자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수사사업은 「반도사」를 편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1915년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발간되어 국외는 물론 국내까지 반입됨으로 민족혼을 일깨우고 항일의식을 고취하게

될 것을 일제는 염려하게 되었다.

제2장은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잘 알려진 대로 일제는 1938년 『조선사』(35권)의 편찬을 완료한 후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은 『조선사』가 완성되기까지 식민지 통치기관에 의한 한국사 연구의 전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지배정책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한국사를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사편수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편수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거나, 일제의 식민사관을 다룬 글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조선사편수회 관련자료의 대부분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위원회의사록』, 『조선사편찬관계서류철』, 『조선사편수회관계서류철』, 『조선사편수회사무보고서』, 『편수타합회서류철』, 『비문서철(비문서철)』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조선사』 35책의 방대한 자료집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분석은 방대한 작업으로 생각됨으로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일제가 간행한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의 내용을 주로 따랐다.

이러한 일련의 『조선사』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조선반도사」 편찬계획, 조선사편찬위원회 설치, 조선사편수회 설치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조선사』 35권을 간행하게 된다.

일제의 조선사 편찬 의도는 『조선사』가 단순한 통사가 아니라 편년체의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급되면 유일한 한국사 자료가 될 것이며,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료를 취사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한 한국사 왜곡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사 편찬 방식과 여기에 참여하였던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면모를 통해 조선사가 이들에 의해 얼마만큼 왜곡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해방 후 식민사학 문제를 다루려 한다. 일제 식민사관의 요체는 타율성이론과 정체성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해방 후 우리 학계에서는 일제의 식민사관 전반에 걸쳐 비판 정리하였다. 그러나 일제 때의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고 그 잔재를 청산하려는 민족적인 요구가 좌절된 것 같이 식민사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식민사학 극복의 한계를 적시하고 일제에 의해 잘못 전달된 실증사학의 실체에 대해서도 살피려 한다.

해방 후 조선사편수회 등 일제기관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진단학회 총무이사였던 조운제는 진단학회에서 ‘친일학자 제명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친일파 제명문제는 그 후 흐지부지 되었고, 여기에 연루되었던 이병도, 신석호는 진단학회를 탈퇴하고 조선사연구회를 새로 결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방 후 친일문제를 둘러싼 역사학회의 여러 동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이병도이다. 이병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평가와 ‘식민사학의 대부’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해방 후 신석호는

조선사편수회의 자료를 수습하여 국사관, 후일의 국사편찬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앞장 서면서 저술활동 등 대외활동이 다소 저조했던 반면 이병도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의 적극적인 학문 활동에 이어 해방 후에도 왕성한 저술활동과 학술활동을 통해 ‘두계사학’으로 표현되는 이병도 사학의 위상과 영향력을 학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였다. 본고에서 부제로 ‘이병도사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고 붙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이병도 역사관의 형성과 해방 후 학계에서 이병도사학의 위상이 어떠 했는지 그의 동료와 후학들의 입을 통하여 살펴보고 한다. 반면 이병도 역사관의 비판 문제도 함께 다루려고 한다.

이병도는 일찍이 자신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과 그의 수용에 대해 흔쾌히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대사 인식은 주류학계의 통설 혹은 정설로 유지되면서 어떠한 비판도 비껴가게 되어 ‘기이하다’ 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병도의 역사관, 특히 고대사관에 대한 비판들을 정리함으로서 그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권 분량으로 집필되었던 원고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을 말해 둔다.

2.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 사업

3.1운동 이후 일제는 한국의 전 민중이 참여한 만세운동에 당황한 나머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한국사 자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조선사』 편찬 사업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조선반도사」를 편찬하려던 당초의 계획도 수정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편찬계획은 「조선반도사」 편찬계획, 「조선사편찬위원회」 설치, 「조선사편수회」 설치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사의 모습을 기형적으로 변조하였다.

이러한 『반도사』의 편찬이 구체화된 것은 이 무렵 발간되었던 박은식의 『조선통사』 발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제가 역사왜곡에 기저를 둔 사서편찬을 계획하던 1915년, 일제의 침략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한국통사』가 국외는 물론 국내에까지 반입되어 민족혼을 일깨움으로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던 것이다.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조선총독부, 1916,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에서 재인용)

이렇게 설립된 조선사편수회는 우리나라 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총정리하기 위하여 1925년에 정무총감 직속하에 설치된 관청으로서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사서에 보이는 자료를 발모(拔摸)하여 고조선시대부터 갑오경장(1894년)까지 이르는 3천년동안의 역사를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시대별로 간행하여 1940년까지 이르는 15년 동안에 36책을 내놓게 되었다.

조선사편수회 참가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총독부 관리를 비롯하여 식민사학자인 오다 시요우고(小田省吾),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이마니시 류(今西龍), 이나바 이

와키치(稻葉岩吉),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등이 있다. 이들은 조선고적조사 사업, 교과서 편찬사업 등 총독부의 한국문화 침탈과 민족의식 말살을 위한 각종 조사사업에 참여하여 식민사학을 침투시키는데 기여한 인물들이다.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144-145쪽) 한편 본 사업에 근무하였던 한국인은 유맹(劉猛), 어윤적(魚允迪), 이능화(李能和), 홍희(洪憲) 등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대학 사학과를 갓 졸업한 신진학자들이 있다.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이병도(李丙燾), 신석호(申奭鎬),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수사관보나 촉탁으로 조선사편수회에 참가하여 『조선사』의 초고 작성을 담당하였다.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인 연구자를 채용할 때 정치적인 인물보다 사료 수집과 분류 등 실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능화, 어윤적, 정만조 이외에도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이병도가 참여했으며, 1928년 10월 최남선, 1929년 4월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제1회 졸업생인 신석호, 윤용균이 합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중추원 소속의 행정관리들이 『조선사』 편찬의 일반사무를 담당하였고, 종래 조선총독부의 각종 조사사업에 참가하여 식민사학의 전파에 앞장섰던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편찬업무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한국사 인식’을 통하여 『조선사』 편찬의 주요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147-150쪽)

구로이타 가쓰미는 한국은 반도로서 일본과 중국의 양국간에 놓여 있어 항상 세력이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한국이 중국의 세력권에 있을 때에도 반도의 북방은 중국풍에, 남방은 일본풍에 혼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한국사의 전개가 중국대륙의 정국의 반영이며 한국사 자체의 독자적인 성격은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만선사관(滿鮮史觀)’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마니시 류는 단군조선을 한낱 고려중기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고 한사군 중 진번군의 위치를 충청, 전라도 지방에 비정하는 등 한국사의 ‘타율성’ 성격을 조장 왜곡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초기 기사는 사료적 신빙성이 없으므로 한일관계사의 연구는 ‘세계적 보전(寶典)’인 『일본서기』에 의해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고대사를 온통 중국과 일본에 의한 피지배와 굴욕의 역사로 왜곡하였다. 신라는 일본의 속국이었으며,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여 신라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는 신라가 일본을 두려워한 것은 생물학상의 유전적인 것이라고까지 극언하면서 한국사를 철저히 왜곡하였다.

3. 해방 후 식민사학의 극복과 한계

해방 이후 한국사학은 민족사학을 계승하는 한편, 제국주의 식민사학을 반성하고 극복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식민사학의 뿌리는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청산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타율성론과 정체성이론 그리고 일선동조론 등의 논리에 근거한 서술이 해방 후에 간행된 저서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 개설류의 책들이 주로 식민사학자의 저술에 의지하고 있거나, 발해를 본문이 아닌 부록에 처리한 점, 고대사에서 한사군을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점, 의병투쟁 등 독립운동을 외면한 점, 조선의 해방을 외세에 의한 타율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나남출판, 1998, 391쪽)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일제 때의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고 그 잔재를 청산하자는 민족적인 요구가 좌절되었다. 때문에 식민사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진단학회 총무간사 조운제가 제기한 친일파 제명문제도 흐지부지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해방 후 한국사 서술 등에서 개별적으로는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학계의 일반 의지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식민주의사관의 극복 문제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어 이른바 반도적 성격론, 사대주의론, 당파성 문제, 정체성 이론 등이 사론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진단학회는 1934년 창립되어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이 일어나면서 해산되었는데, 해방 이튿날 밤 재건되어 재건 직후에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송녕의 회고에 따르면 진단학회는 8월 16일 태화정(泰和亭)에서 재건 모임을 가졌으며 주요한 활동으로 1) 일반인을 위한 국사강습회와 임시중등국사교사의 양성을 위한 강습회, 2) 국사교과서 편찬, 3) 지리교과서 편찬, 4) 학술강연회와 학술조사의 강행을 서둘렀다고 한다. (이송녕, 「나의 이력서」, 『진단학회 60년지』, 1994, 208쪽) 이들은 8월 27일 여운형, 안재홍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와 손잡고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국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미 군정청과도 교섭하여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였고, 11월과 12월에 걸쳐 ‘임시중등교원양성강습소’를 개최하였다. 처음부터 발표회를 가져 5회의 월례 발표회가 있었는데, 발표회가 중단된 1946년 4월부터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조선사편수회 참여 학자들 가운데 해방 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로는 이병도와 신석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처음 진단학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는데, 진단학회는 오래지 않아 활동이 위축되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회장이었던 송석하의 병세가 악화되어 회원 전체를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좌우 대립도 학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친일학자로 지목된 주된 인물들은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했던 이병도와 신석호였다. 이병도는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이끌어온 주도자였지만 더 이상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결국 진단학회를 탈퇴하고 나와 1945년 12월 12일 새롭게 조선사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때 함께 나온 인물로는 이병도를 비롯하여 신석호, 김상기 등이었다.

이들이 진단학회를 탈퇴하고 조선사연구회를 결성하자 염은현, 홍이섭같은 젊은 역사학자들 역시 진단학회를 탈퇴하여 1945년 12월 25일 역사학회를 결성하면서 진단

학회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병도 등이 창설한 조선사연구회는 이병도, 김상기, 강진철, 김정학, 신석호, 신동엽, 김영수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조선사연구회의 회장은 이병도, 부회장은 김상기와 신석호였다. 이들은 《사해(四海)》라는 잡지를 발행하였고, 한국사학에 관한 연구학회로는 효시라는 점에서 뜻있는 결성이 되었다. 그러나 젊은 연구자들이 따로 역사학회를 결성하여 별도의 활동을 전개하여 조선사연구회는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4. 이병도 사학의 위상과 영향

이병도(李丙燾, 1896~1989) 만큼 극단의 평가를 받는 역사학자도 드물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친일 역사학자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현재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안에 부동의 이론으로 단단히 박혀있을 뿐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가기관의 공식기관 편찬물에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인 진단학회(震檀學會)에서 고인의 호를 딴 학술상을 제정해 2012년까지 31회에 걸친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2013년 12월 그의 학문세계를 조망한 학술대회가 열릴 정도로 역사학계에 남긴 족적이 지대하다. 무엇이 그를 ‘식민사학의 대부’와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게 하였는가. 그가 남긴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극복할 것인가.

식민사관의 총본부인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기 위해 31세 장년의 이병도가 교직을 버리고 일했다는 사실은 일본스승을 따라 식민사관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병도는 1927년 5월 촉탁으로 임명된 이래 1938년 6월까지 ‘수사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동안 이병도의 모든 공식 연보에는 ‘조선사편수회 촉탁’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아버지인 이봉구 묘비명에는 분명 그를 ‘수사관(修史官)’이라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일제의 식민사관 총본부에서 단순한 조선인 보조역할이 아니라 공식직책을 받아 제작에 참여한 장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 스승들의 총애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활발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처음 조선 유학사에 관심을 두고 ‘이율곡의 입산동기’를 밝힌 논문을 조선사편수회에서 발행한 『조선사학』 창간호에 발표하였지만, 곧 스승의 지도에 따라 고대사연구에 착수했다. 그의 회고대로 일본인 스승들이 “정치적 요구와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한국과 만주에 걸친 역사지리에 관한 조사사업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고대사 연구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한나라의 고조선 침략과 사군(四郡) 설치에 관심을 갖고 「진번군고(眞番郡考)」(1927년)과 「현도군과 임둔군고(玄菟郡 及 臨屯郡考)」(1930년)를 발표한 데 이어 「고려삼소고(高麗三蘇考)」 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연구목록을 보면, 1926년부터 1933년까지 16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병도의 이런 발표는 일본 학계의 주목도 받았지만 비판 내지 질시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민족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이병기(李秉岐)·이희승(李熙昇) 등 민족사학자들의 활동에 조선총독부가 제동을 걸게 되자, 이병도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병도는 1939년 11월 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를 연합하여 침략전쟁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의 평의원으로 참여하였다. 급기야 그는 1943년 9월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이병기 등 일부 진단학회 회원들이 일제히 투옥하게 되자, “스스로 학회를 해체하고 학보발행을 중지”하고 말했다. 진단학회는 해방 후 재조직되어 학보를 계속 발행하여 한국사연구의 대표 학회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식민통치와 식민사학에 대한 저항이나 민족사관 정립에는 소극적이었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병도의 친일 논란은 그가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한 것에서 연원한다. 그가 조선사편수회로 부임한 일자는 『조선사편수회 사업개요』에 따르면 1925년 8월 8일로 알려져 있다. 이병도의 제자들은 이 시기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이병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병도의 제자를 통해 그의 조선사편수회 시기 학문활동을 살펴본다. (민현구, 「두계 이병도의 수학과정과 초기 학술활동」, 《진단학보》116, 2012)

이병도는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 직에 임명되었다. 이병도는 1927년 5월 사임할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 이 기관의 수사관보로 근무하였다. 이병도가 조선사편수회에 간 것은 그를 지도한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권유와 추천에 따른 것임을 이병도는 뒷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병도로서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을 터인데, 연구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고, 한국사학의 대가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에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역사학자 이병도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라 할 만큼 큰 편차를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평가로부터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서는 ‘친일 사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사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단학회』의 설립을 주도하여 역사학계에 남긴 족적이 지대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에 상반되는 평가 때문에 객관적인 이병도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역사학계에서 유보되어 왔던 점도 없지 않다.

『역사가의 유형』(진단학회, 1991)은 1989년 이병도가 타계한지 2년 후 ‘두계 이병도 선생 추념문집’으로 꾸며진 것으로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병도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글을 모아 간행되었다. 따라서 제자들의 글을 통하여 이른바 이병도 사학의 역사관과 학계 내에서의 이병도 사학의 위상과 영향력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서문에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두계선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암흑기에 어려운 여건 아래 한국사의 연구에 뜻을 두어 커다란 업적을 내시는 한편 동지들을 규합하여 진단학회를 설립,

한국문화의 연구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셨다.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한국사학의 수립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셨다. 이러한 선생의 발자취와 학문적 성과는 격동 속에 전개된 우리 현대사의 한 장면이 동시에 학술사의 귀중한 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과 교우관계를 가졌던 원로 기숙(耆宿)과 선생의 훈도를 받은 후학들, 그리고 그 밖에 선생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학술 문화 교육계의 인사들이 두계선생을 회억하면서 그 풍모와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 주시고 그것들을 종합한 이 책은 단순한 추념문집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생한 역사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30편의 신고(新稿) 이외에도 이 책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기왕의 글들을 수집(蒐輯)하여 실었다. 두계선생과의 대담이나, 두계선생을 위한 생전의 좌담회 기록을 되살려 게재한 것도 마찬가지로 뜻에서였다.

이 추념문집은 우리 현대사학의 개척자요, 일세의 석학이요, 만인의 사장(師丈)이던 두계선생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두계선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값진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5. 이병도 역사관의 비판

이병도의 고대사관은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술이나 논문 형태로 비판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병도의 역사관을 비판한 저술과 논문 가운데 대표적인 3편을 정리하였다. 문정창의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연구평』(백문당, 1976)과 이도학의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토」(『백산학보』제98호, 2014), 임찬경의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국학연구』제18집, 2014)가 그것이다.

문정창이 비판한 『한국고대사연구』는 이병도의 대표 저술로 그의 고대 사관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책이다. 『한국고대사연구』는 학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문정창의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연구평』(백문당, 1976)은 최초로 이병도의 저술을 비평한 책이다. 이도학의 이병도 역사관 비판은 위의 논문을 통해 학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제기 되었다. 이도학의 비판을 통해 앞으로 이른바 ‘이병도 학설’의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도학의 비판 요지는 그의 <국문초록>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한국 실증사학의 비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병도 사학의 중심적인 논고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병도가 제기한 역사지리 비정의 많은 부분은 후학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병도가 특의에 찾던 삼한 중 진한의 위치 비정은 말할 것도 없고, 풍납동토성=사성설 등 술한 논고들이 현금에 와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 이병도 사학은 견고해 보이지만 의외로 허술한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계의 한사군 비정만은 적어도 한국의 강단 사학에서는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점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 필자(이도학)는 이병도 사학 중 역사지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고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 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병도 사학에서 ‘실증’은 없다는 것이다.”

임찬경의 이병도 역사관의 비판은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제18집, 2014에서 정리하였다. 임찬경은 이병도 역사학의 근본적인 문제, 즉 만선사관과의 관계, 역사연구 방법론 등에 대해 비판하였다.

●단군조선의 실체

이병도는 『한국고대사연구』의 시작을 「단군의 설화」로 시작하고 있다. 단군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우리나라 문헌과 중국의 문헌이 다같이 ‘왕검 조선’, ‘개국하니 이름이 조선이다’, ‘처음 조선이라 칭했다’ 등과 같이 실존적 국가로서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한국 고대사의 서장을 ‘단군 설화’로 시작하면서 그 실존을 부인하고 하나의 설화로 격하시켰다. 민족의 기원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 기술은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천년 역사인 우리나라에 단군조선을 신화 또는 설화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1910년 병탄 이후 군국 일본은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전국의 서점, 향교, 개인의 서재 등을 샅샅이 뒤져 『삼국사기』를 제외한 모든 사서와 자주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문헌 20여만 권을 찾아 불살라 버렸다. (문정창, 13~14쪽)

●기자조선의 실체

이병도는 『신당서』 고구려전의 기자신(箕子神)과 가한신(可汗神)을 잘못 해석하여 ‘기자 가한(可汗)을 기자 대왕(大王)으로 풀이하고 싶다’라고 했다. 또한 기자의 성을 한씨라 하고, 또한 그 소위 ‘기자조선’을 ‘한씨조선’이라 잘못 인식하였다.(문정창, 54쪽)

●위만조선의 실체

이병도는 위만조선의 위치를 평안남도 평양 게머리 나루터에 끌고 오기 위해 여러 설을 늘어놓았다. 우리 고대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조선 사편수회가 10년의 작업으로 내놓은 『조선사』 고대편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합리화, 정설화하기 위하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등이 만들어 낸 이른바 ‘낙랑유적(樂浪遺蹟)’이다.

이병도는 평양 게머리 나루터 한 구릉에 있는 토성을 위만의 왕험성이라 하고 지도까지 그려 놓았는데, 『한서』 지리지 요동군조의 ‘물이 험한 곳에 의지하여 세웠으므로 험독이라 불렀다’는 구절을 보았으면 헛되이 지도까지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정창, 40-41쪽)

● 낙랑군의 위치

이병도는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리에 자리한 토성을 위만조선의 왕검성이라고 하고 또한 그곳을 한 무제가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내에는 군청, 현청을 비롯하여 관리의 주택과 기타 존엄건물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토성은 동서가 약 750m, 남북이 약 630m, 면적이 약 396,605m² 가량되는 소규모의 도성으로 그 내부에서 약간의 가옥지, 포장도로, 구지(溝址)가 발견되고 기타 초석, 와당, 전, 봉니, 첩편, 전화(錢貨), 전범(錢範), 동철촉, 영락(瓔珞), 소옥(小玉)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와당에는 ‘낙랑예관’ ‘낙랑부귀’ 등의 명문이 있고, 봉니에는 ‘낙랑태수장’ ‘낙랑대윤’ ‘낙랑우위’ 기타 ‘0邯長印’ ‘점제장인’ ‘長岑장인’ ‘증지장인’ ‘昭明丞인’ ‘불내좌위’ ‘수성우위’ ‘前莫좌위’ ‘邪頭昧00’ 등의 각문이 있는 것이 무수히 출토되었다.” (문정창, 141쪽)

이병도의 이 설은 1913년 일제 식민사학자인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꾸며낸 역측에 이병도 자신이 말을 보태어 만들어낸 부회요 위작이다. (문정창, 48-49쪽)

● 한사군 인식

「조선사개강」에 나타난 이병도의 인식에 따르면 한반도의 조선사는 그 출발부터 ‘한인 국가에 의한 식민지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춘추전국 시기 무렵 한반도의 북부에 나라를 세운 기씨와 그 뒤를 이은 위만, 그리고 위만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한사군 등 한반도의 고대사는 곧 한인에 의한 식민지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결국 이병도의 「조선사대강」에 나타난 한사군 인식은 일제의 침략적 식민사학 논리인 ‘만선사관’이나 ‘타울성론’을 추종하고 있으며, 구체적 위치 및 지명 비정도 역시 당시 일제의 연구 성과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짜깁기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임찬경, 236쪽)

● 충주고구려비의 연호 확인

충주고구려비는 연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 시기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한 관계로 다양한 연대가 제기되었다. 그는 “... 또 나는 비액상에 분명히 ‘건흥사(建興四)’ 세자의 횡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필시 ‘고려건흥4년’의 횡서인데, ‘고려’ 두 자와 ‘년(年)’ 자가 마멸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몽(現夢)으로 확인했을 뿐이었다. 잠자다 꿈에서 보았다는 ‘건흥’이라는 연호 두 글자로 학문 운운 한다는 자체가 논거가 되지 않는 억지라 할 수 있다.

(이도학, 130-131쪽)

● 풍납동 토성은 사성(蛇城)이라는 설

두계는 풍납동토성을 『삼국사기』에 2회 등장하는 진성(鎭城)인 사성으로 비정하였다. 그는 풍납동토성을 백제 왕성으로 지목할 수 없는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 그가 제기한 풍납동토성=사성설의 핵심은 풍납동토성(바람드리 성)과 사성(배암 성)을 음상사(音相似), 즉 발음이 비슷하다는데 연결시키고 있다. 두계는 풍납토성이 한강변에 근접한 관계로 왕성으로 간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후 산성도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1964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었던 김원룡이 풍납토성을 발굴하면서 백제 때 사성으로 규정했던 이병도의 견해를 입증하려는 선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후 풍납동토성=사성설은 확고한 정설로 굳혀졌다. 그러나 오늘날 풍납동토성을 사성으로 지목한 것은 두계의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 문제는 후학들이 두계의 견해를 맹종한 관계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도학, 136-139 참조)

● 영감과 꿈을 통한 해석 방법

이병도가 현도, 환도, 환도의 세 지명을 동일한 지역에 대한 명칭으로 연결시키는 근거는 유사한 발음 이외에는 별다른 사료가 추론의 근거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발상을 추정해 보면 이병도 스스로가 밝힌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어렵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저 유명한 ‘현도군 환도설’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선생님은 많은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하루는 뒷간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얼굴에 웃음을 피우면서 그 내력을 들려주시었다.”

(윤무병, 「두계선생과 사적답사」, 『역사가의 유향』, 103~131쪽)

이병도 고대사 연구에 대한 일화들을 살펴보면 “용변을 보면서 현도군을 환도에 비정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 또 한 번 연출된다. 꿈속에서 깨달아 단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충주 중원 고구려비 문제에 대해) 일전에 내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건흥(建興)’ 두 글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야. 아 눈이 번쩍 떠어가지고 전등불을 켜고 옆에 있는 탁본과 사진을 보니까. 그 글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흥’ 자가 예서체로 옆으로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대개 보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해도 아니 되고, 또 의심할 곳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고 보아요. 좌우간 건흥 두 글자는 연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실증주의 역사학을 떠벌이는 역사학자가 “용변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 한사

군 중의 현도군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든가, “꿈에서 비문을 보고” 풀지 못하던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를 추정하게 되었다는 일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이병도가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현도 고구려설은 이러한 명칭 상에서 고찰해 보더라도 조금도 불합리한 점이 없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라던가, “좌우간 건흥 두 글자는 연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라는 ‘득의에 찬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임찬경, 243-244쪽 참조)

6. 나오는 글

일제의 식민사학은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 정책상 필요에 의해 구상되었고, 이는 수사(修史)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조선총독부 수사사업은 근대 일본정부에서의 수사사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에도의 막부정권을 무너뜨리고 천황제 국가를 수립한 일본정부는 메이지유신 다음해인 1869년부터 본격적인 수사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유교적 명분론에 근거하여 왕정복고와 함께 국가 통합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조선에서도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수사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정사 편찬을 통해 천황체제의 정통성을 얻을 목적으로 일본사를 편찬했던 반면,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할 논리를 생산, 유포할 목적으로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의 수사사업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사전 조사사업 및 연구 활동의 성과물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후반 일본 정부는 왕정복고와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발생한 국내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부국강병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노골화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선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일본 조야에서는 조선을 반드시 정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즉 정한론이 일본 정국에 대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정밀한 사전조사 및 연구를 계속해 왔다.

1894년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이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더욱 심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사활동도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나 정, 재계 유력자들의 지원을 받는 일련의 단체들이 한국에 요원을 파견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관지를 통해 공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연구회(1902) 같은 경우 신앙, 학문, 역사, 문학 등 한국의 문화 제반영역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일제의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점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마침내 역사 분야에도 미치게 되었으며,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 규모 또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사, 연구의 전통은 통감부와 총독부 등 일제의 식민당국이 계승하였다. 일제는 조선 병탄을 앞두고 ‘보호’라는 명분하에 통감정치를 실시하였고, 더불어 ‘구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이라는 관변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을 통해 조선의 관습, 제도, 풍습 등을 조사하여 식민지배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사가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식민사학으로 정리되어갔는데 그러한 작업은 190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이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조사실은 만철의 지원을 받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를 중심으로 한 동경제대 교수들이 추진해갔다.

시라토리와 그를 따르던 쓰다 소우기치(津田左右吉), 센나이(箭内互),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마쓰이(松井等),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은 동경제대의 전통인 실증주의를 표방하면서 한국사를 만주의 종속적 위치에 놓는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였다. 이것이 만선사관이라 할 수 있다. 만선사관은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시켜 한국사와 더불어 한 체계 속에 묶음으로서 한국사의 독자적인 지배영역과 역사발전을 부정하는 역사관이다.

문제는 이나바, 이마니시 류(今西龍), 세노 우마쿠마(瀬野馬熊) 등 이 조사실에서 연구한 인물들이 후일 조선사편수회의 연구를 주도해 가게 되어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만선사관이나 그와 밀접한 논리인 반도적 성격론 등에 의한 타율성론이 조선사 편찬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권이 피탈된 이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구관제도조사사업은 한층 더 본격화되었고, 더불어 역사편찬과 관련된 각종 사업도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법전조사국의 기존업무는 조선총독부 산하 취조국(取調局)으로 인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구관조사(舊貫調査)를 이전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관습조사보고서』를 정정, 보충해 발간하였고, 또한 조선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의 정리, 『대전회통』의 번역 출간, 『조선어사전』 『조선도서해제』 등의 편찬사업도 실행에 들어갔다.

1912년 조선총독부 관제개정에 의해 취조국은 참서관실로 개편되는데, 참서관실에서는 기존 취조국으로부터 이어받은 구관조사사업과 함께 고사자료(考事資料) 수집 등 역사편찬을 위한 선행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자 1915년 5월 구관제도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중추원의 가장 중요한 사무로 ‘역사편찬’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1915년 6월 일제의 조선침략 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출판되고 곧 국내에 반입되면서 한국인들의 민족의식과 항일의지를 고취시키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계획을 서둘러 구체화시켰다.

즉 일제는 1916년 「조선반도사」 편찬요지를 발표하여 ‘반도사’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제의 사서편찬 의도는 ‘반도사’의 시기구분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한국사에서 외세 지배의 역사를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라 단군조선의 역사를 삭제하였으며, 한국사의 출발을 ‘한 영토시대(한사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삼국 가라(가야)시대는 ‘일본의 보증(保證)시대라는 부제까지 붙여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 출발부터 북쪽은 중국의 한사군이라는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고, 남쪽은 일본의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지로 시작된 것으로 마지막 결론은 현재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역사 과정상 당연한 결과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1919년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총독부의 수사사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기존의 통치방식을 크게 수정해야 했다. 이에 새로 부임한 3대 조선총독 사이코 마코토(齋藤實)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사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22년 조선총독부 훈령 64호로 총독부 중추원 내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고, 『조선사(朝鮮史)』 편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정한 역사상이 반영된 통사를 지향했던 『조선반도사』와는 달리 『조선사』는 최대한 간단하게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었다. 결국 『조선반도사』는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사실상 편찬이 중단되고 사료수집과 같은 부속작업만이 진행되다가 결국 『조선사』 편찬사업에 흡수된 것이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식민사서의 편찬을 통해 박은식의 『한국통사』 같은 한국인의 민족주의사학에 정면으로 대치할 필요가 있었이다. 『조선사』 편찬사업은 명목은 ‘위원회’라는 형식적인 기관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경제대 교수인 구로이타(黑板勝美)가 편찬 계획을 주도하였고, 이나바(稻葉岩吉)가 실무책임자로서 편찬주임과 간사를 겸임하는 등 모든 업무를 장악하였다.

그 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찬사업을 국가적 수사사업으로 확대시켜 조선사 편찬에 공정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1924년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총독직할의 「조선사편수회」로 독립, 개편시켰다. 그 과정에서 『조선사』 편찬 계획은 일본에서의 수사사업과 같이 ‘자료집’으로 편집의 방침이 완전히 수정되었다.

앞에서 살핀대로 조선사 편찬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새롭게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여 조선총독의 직할의 독립관청으로 개편하고, 기구도 대폭 확장하였다. 그러나 편찬위원회가 편수회로 개편되었지만 일제의 『조선사』 편찬의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즉 일제의 의도는 김용섭의 지적대로 『조선사』는 단순한 통사가 아니고 자료집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급된다면 이것이 유일한 자료가 될 것이며, 외관상 모든 사료를 망라하여 서술한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많은 취사선택이 행해졌기 때문

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되도록 많이 채록하고, 불리한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중요 결의 사항은 고문이었던 구로이타와 간사였던 이나바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신진학자군으로 일본 대학 출신이나 경성제대 사학과 출신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이병도, 신석호, 윤용균이 참여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계획했던 조선사 편찬 사업은 「조선반도사」 편찬계획, 「조선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선사편수회」 설치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사의 모습을 점차 기형적으로 변조시키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사』 편찬 방식은 편년체로 하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군조선을 수록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사료와 후대에 작성된 사설(史說)은 엄정히 구분하여야 하는데, 단군조선은 건국연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구실을 붙여 이를 수록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기구분의 기점을 '신라통일이전'으로 하면서 단군조선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기조차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사편찬회의 시기구분인 '상고 삼한'과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사서편찬의 하한(下限) 역시 처음에는 '1910년 병탄'까지 서술할 계획이었으나 '갑오개혁'으로 한정하여 한국인들에게 이른바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이후 일제의 한국 침략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간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사』 편찬사업은 최초의 예정으로는 10년에 걸쳐 조선사 30권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16년에 걸쳐서 『조선사』 35권과 『조선사료총간』 20권, 『조선사료집』 3권을 간행하고 1938년 3월 사업을 종료하였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16년 동안 도합 90여 만엔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선사』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는 구로이타 가쓰미, 이나바 이와키치, 이마니시 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식민사학의 선봉에 섰던 자들로, 이는 일제가 종래 일본인들에 의한 각기 개별적으로 주장해 왔던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 등의 식민사학을 『조선사』에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해방 후 우리 역사학계의 우선 과제는 일제가 수립한 식민사학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주의사관의 극복문제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식민사학의 개념은 이기백, 김용섭이 문제를 제기한 이

후 홍이섭, 이만열 등이 전반에 걸쳐 비판 정리하면서 그 윤곽이 잡혀갔다. 그 후 식민사학의 논리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일한동조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그리고 만선사관에 의한 타율성론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 분석과 비판연구가 진행되었다.

식민사관의 요체는 크게 타율성이론과 정체성이론으로 집약되는데 해방 후 우리 역사학계는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이식해 놓은 우리 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 사관을 점차 극복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내부에 뿌리내린 일제의 식민사관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일제 때의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고 그 잔재를 청산하려는 민족적인 요구가 좌절되었다. 때문에 식민사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방 후 한국사 서술 등에서 개별적으로는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학계의 일반 의지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고대사에서 한사군을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점, 발해를 소홀히 다룬 점, 의병투쟁 등 독립운동사를 외면한 점 등이 그러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창립되어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해산되었던 진단학회의 경우 해방과 더불어 재건되었다. 이들은 일반인을 위한 국사강습회와 임시중등국사교사의 양성을 위해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곧 이어 제기된 친일파 척결 논란으로 인해 주역이었던 이병도가 신석호, 김상기 등과 함께 1945년 12월 12일 별도로 조선사연구회를 결성하여 나가게 되었다. 조운제가 조선사편수회 참여자들을 걸어 친일학자 제명문제를 제기한 때문이었다. 이들이 조선사연구회를 결성하자 염은현 홍이섭 등 젊은 소장학자들 역시 진단학회를 탈퇴하여 1945년 12월 25일 새롭게 역사학회를 결성하면서 진단학회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후 친일파 문제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또한 해방 후 역사학계는 좌우익 인사가 모두 함께 참가하다가 점차 사상대립이 심하게 되면서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학회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남북에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회주의계열 학자들은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해방 후 우리 역사학계의 중심적인 인물로 떠오른 역사학자가 바로 이병도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에서 이병도 만큼 극단의 평가를 받는 인물도 드물다. 그는 민족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친일 역사학자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현재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안에 부동의 이론으로 단단히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가기관의 공식기관 편찬물에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그는 ‘식민사학의 대부’와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평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이병도를 조선사편수회 출신들 가운데 대표격으로 설정한 것은 해방 이후 이병도사학으로 대변되는 그의 학문적 위상과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1946년 8월 서울대학교가 창립되고 진단학회 회원들이 사학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이병도는 진단학회에 재가입한 후 서울대 사학과 창설을 주도한 것은 물론 본격적

인 사학계의 중심인물이자 원로로 등장하였다.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진단학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4.19혁명 후에는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1961년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진단학회 평의회 의장,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을 맡았으며, 1980년부터 전두환 정부에서 8년간 국정자문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두계사학’으로 표현되는 이병도사학의 위상은 한국 역사학계에 두드러졌다. 그의 제자들이 칭송한 찬사만 보아도 ‘한국 사학계의 태두(泰斗)’를 비롯하여 ‘사학계의 큰 별’, ‘한국학의 태양’, ‘한국 사학계의 빛’, ‘사학계의 거목’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한영우는 이병도의 사학사적 위치에 대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역사가 랑케가 역사를 위한 역사와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표방하면서 역사를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켜 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사학사에서 역사를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시킨 이를 꼽는다면 아마 이병도를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랑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당시 학계에서 이병도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병도의 제자들은 그의 추모문집 『역사가의 유향』 서문에서 ‘우리 현대사학의 개척자요, 일세의 석학이요, 만인의 사장(師丈)이던 두계선생’이라 평하고 있다. 이어서 ‘두계선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암흑기에 어려운 여건 아래 한국사의 연구에 뜻을 두어 커다란 업적을 내시는 한편 … 이러한 선생의 발자취와 학문적 성과는 격동속계 전개된 우리 현대사의 한 장면인 동시에 학술사의 귀중한 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하고 정리하고 하였다.

반면 이병도의 일제강점기 처신과 관련하여 ‘지식인의 양심과 학자로서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었던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의 특수한 시대상황 속에서 학자로서의 전문성에만 치중해 왔던 그의 인생관과 시국관은 자연히 그의 학문이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생기있는 역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한다.

이병도의 역사관, 특히 고대사관이 식민사관이냐 실증사관이냐를 두고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주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근래에 일어난 일이다. 이도학과 임찬경의 논문이 그것인데, 이도학은 ‘한국 실증사학의 비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병도 사학의 중심적인 논고를 검토해 보니 이병도가 제기한 역사지리 비정의 많은 부분은 후학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병도 사학 중 역사지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고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 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병도 사학에는 ‘실증’이 없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고 있다. 실증학자의 대표적 인물인 이병도에게 실증이 없다는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문정창은 일찍이 이병도의 고대사관이 함축되어 있는 『한국고대사연구 평』(백문당, 1976)이라는 비평서를 간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평서는 세상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문정창은 주류사학계가 말하는 이른바 재야사학자이다. 그는 이병도의 저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주요 논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고

조선 문제, 한사군과 삼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고대 사료를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제 식민사관의 요체는 고대사에 대한 역사왜곡이며, 그것은 고조선 문제와 한사군문제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대표적 논쟁이 된다. 문정창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도는 한국고대사의 서장을 ‘단군설화’로 시작하면서 그 실존을 부인하고 하나의 설화로 격하하였다. 민족의 기원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기술은 일제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자의 성을 한씨라 하고 그 소위 ‘기자조선’을 ‘한씨조선’이라 잘못인식하였다.’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이병도의 대동강변 토성리설에 대하여도 ‘이병도의 이 설은 1913년 일제 식민사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꾸며낸 억측에 이병도 자신이 말을 보태어 만들어낸 부회요 위작이다. 이병도는 세키노 다다시가 게머리 나루터에 위치한 망명 부로한인(俘虜漢人)들의 수용소로 보이는 토성을 …’ 등등 이병도의 고조선과 한사군 한반도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도학은 이병도의 사학 중 역사지리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실증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했다. 위만의 족원(族元) 문제, 부여와 동명 문제, 삼한의 위치, 고구려 지명의 위치 비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찬경은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이 학계의 통설 혹은 정설이라고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를 통설로 만든 이병도의 후학 그 누구도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에 대해 학술적으로 심층적인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임찬경의 경우 특히 이병도의 초기 저작인 『조선사개강』(1923)의 한사군 서술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추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검토 결과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은 지극히 학술적이지 못한 그의 추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냈다. 또한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은 그의 태생적인 한계, 즉 일제 식민사학과 동류 혹은 그의 영향력 아래 형성된 식민지 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아류적인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은 그의 후학 및 동류 집단에 의해 아직도 한국사회의 통설 혹은 정설인 것처럼 만들어져 유지되고 있는 기이한 우리 사회의 한 학술적 단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병도는 『한국고대사연구』의 서문에서 이미 자신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과 그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비평 작업들은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이병도 사학에 대한, 그리고 식민사학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는 방향으로 이행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병도 사학, 특히 그의 고대사관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활성화되어,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고대사의 재정립 문제가 하나씩 정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저서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사』, 1990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박결순, 『식민지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2004.
-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관료 연구』, 학민글밭, 1999..
- 박은식, 이장희 역, 『한국통사』, 박영사, 1974.
-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 손진태, 『한국민족사개론』, 을유문화사, 1988.
- 신주백, 『한국 역사학의 기원』, 휴머니스트, 2016.
- 원유한, 『홍이섭의 삶과 역사학』, 혜안, 1995
- 이기백, 『한국사학사론』, 일조각, 2011.
- 이도상,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경인문화사, 2003.
- 이만열,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81.
- 이병도, 『신수 국사대관』, 보문각, 1954.
- _____,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 _____, 『두실여적』, 박영사, 1975
- _____,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7.
- _____, 『성기집』, 정화출판문화사, 1983.
- 이우성 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하, 창작과비평사, 1993.
- 이현희, 『정한론의 배경과 영향』, 대왕사, 1986.
-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 진단학회편, 『역사가의 유향』, 일조각, 1991.
-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나남출판, 1998.
- 조동걸 한영우 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하) 창작과비평사, 1994.
-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4.
- 조향래,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사연구』, 현음사, 1994.
- 진단학회, 『진단학회 60년지』, 1994
- 치암신석호박사고희기념논집간행위원회, 『치암 신석호박사 고희기념논총』, 1973.
- 친일문제연구회, 『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1996.
- 편집부,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시인사, 1985.
- 편집부, 『한국사 시민강좌』 제1집(식민주의사관 비판 특집), 일조각, 1987.
- 편집부, 『한국사 시민강좌』 제20집(한국사학, 무엇이 문제인가), 일조각, 1997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2. 논문

강만길, 「일제시대의 반식민사론」, 『한국사학사의 연구』, 일조각, 1985.

강진철, 「정체성이론 비판」, 『한국사 시민강좌』1, 1987.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국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9.

김용섭,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31, 1966

_____,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관」, 『한국사의 반성』, 신구문화사, 1983.

민현구, 「두계 이병도의 수학과정과 초기 학술활동」, 『진단학보』116, 진단학회, 2012.

박결순, 「일제하 일인의 조선사연구 학회와 역사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박영재,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론과 한국론」, 『한국사 시민강좌』19, 1996.

박현주, 「조선총독부중추원의 사회, 문화조사활동」, 『한국문화인류학』제12집, 1980.

이규수, 「일본의 근대학문과 국사편찬」, 『역사문화연구』5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4.

이기동, 「이병도 선생의 한국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학술사적 위치」, 『진단사학』 116, 진단학회, 2012.

이기백, 「일제시대 한국사관 비판」, 『문학과지성』 1971년 봄호

_____, 「신민족주의사관과 식민주의사관」, 『문학과지성』 1973년 가을호

_____, 「반도적 성격론 비판」, 『한국사 시민강좌』1, 1987.

이기용, 「정한론 비판」, 『한일관계사연구』, 8, 1998.

이도학,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백산학보』98, 백산학회, 2014.

이만열,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 서술」, 『한국사론』 6, 1976

이명화, 「일제총독부 간행 역사교과서와 식민사관」,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이장우, 「실증사학의 반성과 전망」, 『한국사 시민강좌』20, 1997.

임찬경,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18, 국학연구소, 2014.

장 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11.

_____, 「식민지에서의 제국 일본의 역사편찬사업」, 『한국사연구』 160, 한국사연구회, 2013.

조동걸, 「식민사학의 성립과정과 근대사서술」, 『역사교육논총』 13-14합집, 1990

_____, 「민족사학의 발전」,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천관우, 「한국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20, 1963
- 하지연,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한국근대사 연구와 식민사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 현명철, 「일본 막부말기의 대마도와 정한론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2, 1994.
- 홍승기, 「실증사학론」, 『현대한국사학과 사관』, 일조각, 1991